

## Annotated Bibliography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1987~1988

저술소개, 1987~1988년

**편집자주** : 본 호에 실린 저술소개는 1987년 7월에서 1988년 6월 사이에 발간된 전국 각 대학교 및 대학, 대학교부설 연구소, 기타 사회과학학회 및 민간연구소의 논문집 중에서 한국의 인구 및 발전문제에 관련되는 논문만을 발췌 수록한 것임.

**Editor's note** : This bibliography lists articles on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 which appeared during July 1987 through June 1988 in social science journals published by various universities, colleg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 1. Population Growth and Policy 人口成長과 人口政策

1887. 孔世權, 金初江, “韓國人口의 老齡化 特徵” (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 7권 제 2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12, pp. 171~186.

Kong Sae-Kwon, Kim Cho-Kang, “Demographic Aspects of Aging in Korea”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 7 No. 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7. 12, pp. 171-186.

이 논문에서는, 금세기에 들어 급격한 출산력과 사망력의 저하를 보인 한국인구는 2,000년대 초기부터 급속한 노령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에 따른 노인복지문제와 관련된 노인인구의 인구학적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노령사회에서는 성별 차이 사망력으로 인해 노인중 60% 이상이 여성노인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이를 위한 준비는 삶의 조건에서 복합적인 고찰을 요구한다고 한다.

1888. 鞠敏鎬, “出産力變動에 미치는 經濟的 變因에 關한 考察”(영문), 한국인구학회지 제 11권 제 1호, 한국인구학회, 1988. 5, pp. 131~145.

Kuk Min-Ho, “Do Economic Variables Affect Fertility?” (in English),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11 No. 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8. 5, pp. 131-145.

As the society develops, the trend for a couple to have one or two children is prevalent through the world. The author argues that the future study of economic theory on fertility should give more attention to the currently unexplained area, such as psychological effects or changing situational-institutional effects which include various side-effects that can not be anticipated within the economic hypothesis on fertility.

1889. 김용학, “조직의 인구생태학 모델: 선택과정의 정교화와 방법론적 비판”(영문), 연세사회학 제 8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1987, pp. 151~184.

Kim Yong-Hak, “The Population Ecology Model of Organizations: A Methodological Critique and an Elaboration of Selection Processes” (in English), *Yonsei Journal of Sociology* Vol. 8, Department of Soci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87, pp. 151-184.

This study shows that the PEM's application of a tight analogy of Darwinian natural selection to organizations creates a number of problems. After identifying the model's logi

cal structure, it criticizes the model by focusing on the model's basic logical unit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PEM based on the biological analogy is proved to be theoretically weak. To overcome its weakness, the author proposed a two-stage selection model which incorporates elements of both environmental selection approach and a purposive action approach.

1890. 金潤信, “最近 在日韓國人の 平均壽命에 관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 7 권 제 2 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12, pp. 39~55.

Kim Yoon-Shin, “Recent Life Expectancy of Koreans in Japan, 1980 and 1985”(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7 No.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7.12, pp.39-55.

이 논문에서는, 在日한국인의 인구·보건학적 연구의 일환으로 일본의 「국제조사인구」를 이용하여 1980~85년의 재일한국인 간이생명표를 작성하고, 간이생명표에서 산출된 생명표 함수를 고찰하였으며 평균수명의 추이를 본국의 한국인과 일본인과 비교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① 1985년 0세의 사망확률( $q_0$ )은 남자가 0.00530, 여자가 0.00610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 1985년 남자의 50~65세군에서는 사망확률( $nq_x$ )이 여자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② 생존수( $l_x$ )를 비교한 결과 근년에 들어 남녀 모두 생존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남녀간의 차는 점점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고, ③ 생명표 함수 및 표준사망률을 남녀별로 비교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④ 남녀 모두 평균수명이 매년 연장되고 있고, 한국인보다는 높고 일본인보다는 낮다. 이상의 결과는 재일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매년 연장되어 일본인의 평균수명에 가까워짐을 나타내고 있고 재일한국인 1세의 남자인구가 점차 소멸됨을 시사하고 있다.

1891. 金潤信, 高應麟, “韓國人の 主要死人除去가 平均壽命에 미치는 影響”(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 7 권 제 1 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7. pp. 24~36.

Kim Yoon-Shin, Ko Ung-Rin, “Changes in Life Expectancy of Koreans Due to Reduction in Leading Causes of Death in 1985”(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a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7 No.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7.7, pp.24-36.

이 논문은 1985년 우리나라 센서스 인구의 2퍼센트 추출인구와 사망원인 통계를 기초자료로 이용하여 주요 3대 死因(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이 제거됐을 경우 평균수명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측정하고자 multiple-decrement life table 및 cause deleted life table을 작성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수명의 연장년수는 남자는 악성신생물에서 2.2년으로 가장 높고, 뇌혈관 질환에서 1.7년, 심장질환에서 1.0년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뇌혈관질환에서 2.4년으로 가장 높고, 악성신생물에서 2.2년, 심장질환에서 1.6년으로 나타났고, 또한 주요사인을 제거했을 경우 0세 및 65세에서 나타난 평균수명의 남녀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주요사인이 제거됐을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892. 金益基, “多水準分析에 의한 韓國婦人の 出生行爲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 11 권 제 1 호, 한국인구학회, 1988. 5, pp. 97~116.

Kim Ik-Ki, “A Multilevel Analysis of Fertility Behavior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11 No.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8.5, pp.97-116.

본 연구는 개인과 지역사회수준의 차이점을 고려하면서 개발한 모델에 의해, 한국에 있어 출산행위의 사회경제적 결정요인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맥락에서 출산행위의 미시적-거시적 관계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미시적 분석을 위한 자료는 1974 한국출산조사(KNFS)에 의거하고 있으며, 거시적인 분석을 위한 자료는 정부통계에서 얻고 있다. 모델구성은 출산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모델은 3가지의 출산 과정 요소, 즉 초산연령, 초산, 단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결과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초산연령을 높였으며, 부부당 자녀수를 줄였고, 가족계획에 의해 출산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가족계획의 효과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에게서 그렇지 못한 여성보다 더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

1893. 김일현, 崔鳳鎬, “最近의 嬰兒死亡率 水準의

推定”(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 11권 제 1호, 한국인구학회, 1988. 5, PP. 76~86.

Kim Il-Hyun, Choi Bong-Ho, “A Study on Infant Mortality in Korea : 1981-86”(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11 No.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8.5, pp.76-86.

본 논문의 목적은 영아사망률에 대한 많은 논문에서의 연구결과들이 구체적으로 영아사망률 수준을 정확히 제시하여 주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원인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영아사망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출생아 사망신고 누락분을 다른 여러 자료와 비교하여 추정함으로써 정확한 영아사망률을 파악하는 데 있다. 먼저 자료로부터 영아사망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한 후, 영아 사망의 원인을 통계적 수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영아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선천 이상이며, 그 다음이 폐렴, 주산기의 병태 순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신고된 영아사망 가운데 주산기에 기인되는 병태로 인한 신생아사망이 누락되는 것을 감안하여, 사망원인 유형이 선진국과 비슷하다고 추측하고 있다. 필자는 영아사망 통계를 잘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구의 필요성과 병의원 및 조산원 등에서 출생 후 사망에 대한 신고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함을 주장한다.

1894. 金漢坤, “自營業에 從事하는 既婚婦人の 出產行爲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 11권 제 1호, 한국인구학회, 1988. 5, PP. 87~96.

Kim Han-Gon, “Determinants of Fertility Behavior Among Self-Employed Korean Women”(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11 No.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8.5, pp.87-96.

본 연구는 자영업에 종사는 한국 여성들의 출산 행위의 보편적 성격을 기술하고, 자영업 기혼 여성의 출산의 결정인자를 살펴보고, 또 여성들의 출산결정요인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 사회경제적인 변수와 출산력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아동사망율이 높을수록 출산률은 높을 것이라는 가설과 인공유산률이 높을수록 출산률은 낮을 것이

라는 가설, 초혼연령이 낮을수록 출산률은 높을 것이라는 가설, 결혼기간이 길수록 출산률은 높을 것이라는 가설, 피임기간이 길수록 출산률은 낮을 것이라는 가설 등은 조사에 의해 검증되었다. 반면에,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출산률은 낮을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률은 낮을 것이다”, “매스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이 길수록 출산률은 낮아질 것이다”, “피임비용지출이 많을수록 출산률은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필자는 자영업여성의 출산결정요인은 초혼연령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 다음이 유산, 피임기간, 아동사망수, 결혼기간 등의 순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1895. 魯公均, 趙南勳, “우리나라의 出產과 家庭經濟行態에 關한 研究”(국문), 한국인구학회지 제 10권 제 2호, 한국인구학회, 1987. 12, PP. 16~45.

Ro Kong-Kyun, Cho Nam-Hoon, “Household Economic Behavior and Fertility in Korea”(in Korean),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10 No.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7.12, pp.17-45.

본 연구는 부양가족비를 결정하는 자녀양육을 개별 가정의 소비·저축행위의 구조내에서 고찰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개별 가계의 소비구조가 변화하여 식료품, 피복, 주거와 같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지출 구성비가 감소하고 문화비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구조의 변화가 출산률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고 있음이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다. 또한 소비에 대한 저축의 비가 증대하여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한다. 즉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하기 보다는 자신의 저축에 의해 노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므로 자연히 출산률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저축구조를 개인이 의도하는 대로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을 2가지로 모색하고 있다. 첫째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문제이고, 둘째는 연금제도의 실시인데 이 둘의 결합효과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한 출산율의 감소는 미래에서의 要求程度를 감소시킬 것이고, 女性에 대한 보다 나은 작업기회를 쉽게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1896. 文昌珍, “女性經濟活動과 出產選好”(국문), 한국인구학회지 제 10권 제 1호, 한국인구학회, 1987. 7, PP. 1~27.

Moon Chang-Jin, “Women's Work Partici

pation and Fertility Behavior" (in Korean),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10 No.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7.7, pp.1-27.

본 논문은 여성경제활동과 출산선호 관계에 대한 연구에 있어 기존연구들의 방법론적인 문제들에 대해 비판하면서, 근대화 모형이나 역할양립 이론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변수들간의 관계를 간과하는 오류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검토위에서 필자가 도출한 결론은 첫째, 여성의 교육정도는 자녀선호에 대하여 일관성있고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때, 출산억제 정책은 여성의 교육기회증대라는 사회개발목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여성의 늦은 결혼시기는 선호자녀수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교육과 고용기회 증대, 홍보 계몽을 통해 혼인시기를 늦추는 정책이 유효하며, 세째, 사회발전과 더불어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은 출산억제 노력과는 별도로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회도 있으며, 네째, 가정에서의 향상된 여성지위는 선호자녀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출산억제의 도구적 수단으로 여성지위 향상이 의미있으며, 다섯째, 출산억제를 위한 정책수단은 여성경제활동을 역할양립이 어려운 근대적 부문에 대한 취업을 장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1897. 朴京愛, "死亡力の性別差異"(국문 및 영문 요약), 인구보건논집 제 7 권 제 1 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7, pp. 55~71.

Park Kyung-Ae, "Sex Differences in Mortality"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7 No.1,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7.7, pp.55-71.

인간의 기대수명이 길어질수록 남녀간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별사망력의 차이는 중년 이상의 연령층에서 남성들이 주로 순환기계질환, 특히 虛血性心疾患에 약한 탓이다. 모든 연령층에 걸쳐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사망율을 가지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현재 만연하고 있는 여러가지 접근을 생물학적, 행동적 및 사회구조적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검토 평가하였다. 생물학적 설명은 남녀의 생물학적인 내재적 차별, 주로 호르몬, 유전자, X염색체 등을 통하여 여성의 신체적 우수성을 필연시하는 입장인데 이러한 내재적 차이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간과하는 문제점

을 가진다. 행동적 설명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요소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음주, 흡연 등 개인적 행동양식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사회구조적 설명 역시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입장이지만,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구조 내의 위치 또는 사회구조 자체에서 성별차이를 설명한다. 결혼은 현재 남성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고 있고, 사회 계급이 높을수록 여성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며, 여성의 직업활동이 여성에게 해롭다기 보다는 직업의 구조에 따라 성별사망력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개인은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개인의 행동적 설명과 사회구조적 설명을 통합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제안한다.

1898. 박상태, "朝鮮後期の人口—土地壓迫에 대하여"(국문), *韓國社會學* 제 21 집, 한국사회학회, 1987. 겨울, pp. 101~122.

Park Sang-Tae, "Population-Land Pressure in Late Yi Dynasty" (in Korean), *Journal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21,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Winter 1987, pp.101-122.

본 논문은 먼저 근세조선후기(1650-1850) 인구와 토지구묘의 변화를 살펴보고, 다음 경지구묘와 더불어 人口·土地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량생산 및 농업발전을 개관하고 인구·토지압박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와 실학자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다음 인구압박의 간접적 요인이 되는 토지제도, 조세제도 및 행정관료의 문제점 등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 실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실학자들은 절대가경지의 확장이나 생산성의 향상보다는 유흥지의 이용과 토지 및 조세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빈곤과 기아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력 증대책으로 다출산주의의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빈곤과 기아는 불합리한 토지제도와 불공평한 조세제도에서 인구·토지압박현상이 기인한다고 보고 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중인계급에 속하는 지방관리와 호족들에 대해서 철저히 비판하였으나, 중앙정부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양반계급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았다. 조선 후기의 거듭되었던 농민반란은 지배계급의 실정과 인구압박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의 복합작용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1899. 방 숙, "家族計劃과 保健事業의 統合試圖" 및

評價結果”(영문), 한국인구학회지 제 10 권 제 2 호, 한국인구학회, 1987. 12, pp. 58~81.

Bang Sook, “Review of Family Planning/Health Integration Efforts and Evaluation Results in Korea”(in English),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10 No.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7.12, pp.58-81.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from various studies conducted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he author summarizes the integration issues of family planning programs as follows: (1) “Integration” is not the end itself but the means to bring together the elements of an integrated program. (2) Integration means the process of linking each special task toward a common goal with the organizational factors and integrative linkage factors. (3) However, such linkage at the service delivery level will not be effective without a policy and program level integration. (4) The proper management of an integrated program is essential for organizational performance. (5) Since many field workers and administrators are not well trained, a management workshop is necessary to delineate the common goals and objectives of an integrated program to enhance understanding of meaning and value of each area (i.e. FP, MCH) and to clarify each worker’s role and to clarify each worker’s division of labour in carrying out the specific elements of the integrated program. (6) The benefit of integration can not occur automatically. The evaluation of the integrated program has different prospects.

1900. 愼潤宰, “人口動態申告 및 統計調査의 改善 方案”(국문 및 영문요약),

Shin Yun-Jae, “A Study on Improvement of Vital Registration and Statistics System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 11, No.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8.5, pp.58-75.

이 글은 현행 우리나라 인구동태 신고제도 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정책결정의 우선순위, 관리행정, 법률 및 제도, 신고와 관련하여 국민의 의식

속에 뿌리박혀 있는 여러가지 사회문화적·인습적 풍속이나 관습 등 네가지 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여기서 필자는 무엇보다도 “政府의 意志와 政策決斷”을 강조하며,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주어지지 않는 한 완전 신고에 의한 完全한 人口動態統計는 이루어질 수 없고, 완전한 인구통계에 근고하지 않는 한 各種 國家政策은 執行過程에서 試行錯誤를 不可避하게 겪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1901. 安啓春, 金泳起, “東歐諸國의 人口 및 保健政策에 관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 11 권 제 1 호, 한국인구학회, 1988. 5, pp. 117~130.

Ahn Kye-Choon, Kim Young-Ki, “A Study on the Population and Public Health Policies in East European Countrie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11, No.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8.5, pp. 117-130.

본 논문은 지난 4년동안 동구 여러나라의 인구 및 보건의료 정책에 관하여 단편적 혹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연구의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한국에 있어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해 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구 공산권의 여러 나라에 있어서 인구 및 보건의료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수립, 집행하는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적인 특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구성장에 관한 정책, 인구이동 및 재배치에 관한 정책, 보건·의료정책 등을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요약·정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경제발전 위주에서 사회·경제의 종합적 발전을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고, 사회개발의 일환으로 보건·의료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동구 여러나라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1902. 尹治根, 金正根, “回歸群型을 통한 保健指標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에 관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 7 권 제 1 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7, pp. 89~107.

Yoon Chi-Keun, Kim Jong-Kun, “A Study on Health Indicators and Health Affecting Factor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7 No.1,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7.7,  
pp.89-107.

이 논문은, 일국의 보건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보건지표를 제시하고 보건수준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아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보건의료공급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를 이용하여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행하고 있다. 분석의 결과는, 영아사망율과 평균수명과의 높은 상관관계는 일국의 보건수준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 두 지표를 결합해서 보다 이 둘 중 하나를 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 국민에 대한 최적 회귀방정식에서 항상 유의미한 변수가 성인문자 해독률이라는 것, 또 의사의 활동은 국민의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통제하는데 직접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03. 李光奎, “在美韓人の 分布研究”(국문),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9 권 제 3 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8. 5, pp. 103~104.

Lee Kwang-Kyu, “A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Koreans in America”(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9 No.3,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8.5, pp.103-144.

이 논문은 在美韓人の 구성과 분포에 관한 인구학적 분석으로, 在美韓人の 분포를 크게 네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첫째, 연대별 인구의 증가, 둘째, 1980년도의 통계를 사용해서 살핀 현재의 인구, 셋째, 미국내의 연구된 아시아계 미국인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在美韓人の 구성상의 특성을 살펴, 넷째로 在美韓人이 많이 거주하는 몇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在美韓人の 분포와 구성을 분석하고 있다.

1904. 李奎植, 金鐸一, “우리나라 人口政策의 再吟味”(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 11 권 제 1 호, 한국인구학회, 1988. 5, pp. 32~49.

Lee Kyu-Sik, Kim Taek-II, “Review of Population Policy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11 No.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8.5, pp.32-49.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나 경제수준이 이제 저성장 均衡陷穽이라는 빈곤상태에서 벗어나 선진국 수

준으로 진입할 단계에 있고 출산력 수준도 代置水準이하로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이 과거 20~30년 전에 설정된 방향과 같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하나는 직접 人口增加率을 유지하는 것인데, 매우 동태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 즉 장기적인 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영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전개된 논리다. 그러나 이 주장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적 한계성과 국민생활의 비물질적 질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 다른 하나는 人口過剩論인데, 이것은 매우 정태적 관점에서 국토의 한계성이나 생활의 불편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장기적인 발전법칙은 다소 경시된 측면이 있는 주장이다. 양자의 주장이 모두 올바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한 다른 측면은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向後에 생각될 수 있는 政策은 양 주장의 올바른 면을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즉 ① 영속적인 국가발전에 바람직한 適正人口增加率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② 그러나 우리나라의 政策的 고민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인구가 조밀하여 넘쳐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05. 李興卓, “韓國의 代替出産以下 人口”(영문), 한국인구학회지 제 11 권 제 1 호, 한국인구학회, 1988. 5, pp. 146~158.

Lee Heung-Tak, “Below Replacement-level Fertility in Korea: A Myth or a Reality?”(in English),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11 No.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8.5, pp.146-158.

In this study, efforts are made to compare changes in the fertility levels of Korea, Japan, China, and Singapore, and to access what the future might hold for Korea's fertility pattern, and whether the current downward trend might continue to prevail.

1906. 張昌谷, 金應錫, “出産水準에 영향을 주는 개인특성변수의 내부구조에 관한 연구”(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 7 권 제 2 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12, pp. 73~84.

Chang Chang-Gok, Kim Eung-Suk, “Log-Linear Analysis of the Personal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Fertility among Contraceptive Using Women”(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7 No.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7.12, pp.73-84.

이 논문은,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서 1985년에 실시한 전국출산력 및 가족계획실태조사자료에서 단산목적으로 피임하는 부인 2,85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이들을 시부, 군부별로 현존자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간의 내부구조를 代數線型모델을 사용하여 밝혀내고,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母의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며 특히 교육수준은 시부와 군부에서 출산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로서 교육수준의 상승은 출산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1907. 趙南勳, “出產調節政策의 現況과 展望”(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 11권 제 1호, 한국인구학회, 1988. 5, pp. 14~31.

Cho Nam-Hoon,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Population Control Policy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11 No.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8.5, pp.14-31.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인구억제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뿐 아니라 부인의 出産力도 인구의 안정화를 예견할 수 있는 인구 代置水準에 도달되었다. 이와 같은 인구억제 정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빈약한 현실에서 向後의 인구성장이 사회경제적 발전에 미치는 惡影響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정부는 1993년까지 인구증가율을 1.0%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목표하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피임실천률이 저조하고 출산력이 높았던 시기에 있어서는 피임 보급의 확대를 통한 출산력 저하가 가능했지만, 불임수술을 위주로 한 높은 피임실천률과 2명 수준의 출산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피임 보급물량의 확대나 실적 위주의 사업관리운영은 단지 사업의 효율만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한다. ①정책지원 피임보급 전략의 전환, ②정부지원 피임시술 서비스의 유료화, ③피임대상자 접근방법의 개선, ④피임약제거구의 품질개선, ⑤규제 및 보상제도의 보완, ⑥남녀평등을 위한 사회제도 개선, ⑦시·도 단위 가족계획 관리기능의 강화,

⑧학교인구교육의 강화, ⑨가족계획 사업에 관한 종합경영진단의 실시.

1908. 韓聖鉉, “周産期 및 女兒死亡에 影響을 주는 要因分析”(국문 및 영문요약), 한국인구학회지 제 10권, 제 1호, 한국인구학회, 1987. 7, pp. 39~49.

Han Sung-Hyun, “Log-linear Analysis for the Study of Affecting Factors on Perinatal and Infant Mortality in Rural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10 No.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7.7, pp.39-49.

본 논문은 영아사망율이나 주산기 사망율을 보건의표로서 뿐만 아니라 인구,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분야의 지표로 보고, 한정된 기존 보건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사망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가려내어 이 요인을 가진 집단에 관리를 집중시켜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 주산기 및 영아사망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영아사망률은 현재의 33수준에서 앞으로의 감소폭은 대단히 적고, 영아사망 가운데에는 신생아 사망률이나 주산기사망률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영아사망률의 저하를 위해서는 신생아사망률의 저하에 주력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 주산기 및 신생아사망률을 저하시키기 위하여 짧은 출산간격 및 산과적 위험요인을 가진 부인과 의료적 위험요인을 가진 부인을 가려내어 임신을 제한하거나 연장하도록 권장하고, 임신부인 중 상기요인을 가진 집단에 산전관리, 안전한 분만, 건강한 양육을 위한 모자 보건사업의 집중적 투입을 제안하고 있다.

1909. 韓英子, 金顯玉, “人口動態申告資料로 본 韓國의 出産力 變化樣相 및 추세”(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 7권 제 2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12, pp. 56~72.

Han Young-Ja, Kim Hyun-Oak, “Analysis of Fertility Trends in Korea Using Vital Statistic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7 No.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7.12, pp.56-72.

이 논문은 출산력의 변화추세를 파악하여 국가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과 아울러 출산력실태 파악을 위한 인구동태자료 활용의

필요성을 부각시킴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 최근에 올수록 출생은 20대 연령의 부모 집중되며, 저순위 출생아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모든 연령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출산수준이 낮아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1980년대 이후 더욱 현저하다.

## 2. Migration and Urbanization 人口移動과 都市化

1910. 權哲賢, “都市下層社會研究에 있어서 貧困의 文化論的 視角”(국문 및 영문요약), 大學院 論文集 제 12집, 동아대학교, 1987. 7, pp. 89~100.

Kwon Chul-Hyeon, “An Analytical Perspective on ‘Culture of Poverty’ in the Study of Lower Class in Urban Community”(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Research Works of the Graduate School Vol. XII*,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Pusan, Korea, 1987. 7, pp. 89-100.

이 글에서는, 貧困層의 集住地域 내부의 생활 양식에 초점을 두는 연구의 계보 중에서 社會解體 현상에 관심을 집중하는 시키고학파의 人間生態學的分析 시각과는 달리, 解體 개념에 대신하는 것으로써 貧困者의 생활양식의 총체를 下位文化로서 포착하려고 하는 ‘貧困의 文化論的 分析 시각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O. Lewis의 빈곤 문화론은 많은 연구자에 의해 注目됨과 동시에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필자는 이것들을 소개한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문화론은 개발도상국 빈민층의 집단거주지역의 해석의 틀로서, 또 빈곤대책을 강구할 때의 논의의 원점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과, 따라서 빈곤과 문화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빈곤 및 빈민층집주지역 현상의 사회학적 분석을 한층 진화시키기 위해서도, 빈곤박멸정책 또는 빈민층집주지역 대책의 적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11. 김영정, “韓國 都市變動의 性格에 關한 試論的 考察—70年代 이후의 都市集積의 加速化와 都市政策의 關係에 對한 分析—”(국문), 韓國社會學 제 21집, 韓國社會學會, 1987. 겨울, pp. 55~76.

Kim Young-Jeong, “A Preliminary Study on the Urban Change in Korea”(in Korean),

*Journal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 21,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Winter 1987, pp. 55-76.

본 논문은 60년대 이후 서서히 진전되고 70년대부터 본격화된 한국의 도시집적의 가속화에 따른 도시변동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의 전단계로서, 앞으로의 작업을 위한 이론적인 인식의 틀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에서 계획된 것이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60년대와는 여러가지 점에서 차별적인 70년대 이후의 한국의 도시집적의 가속화 현상을 자본주의적 도시화의 진전으로 규정하고, 이의 설명을 위해서는 인구·생태학적 모델을 넘어서서 한국적 자본주의의 특수성에 기초한 정치경제학적 패러다임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또한 필자는 70년대 이후의 도시내부의 제반 세력관계를 결정하고 재편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변수가 도시계획 및 도시정책 사업으로 위현화되는 국가의 도시행정조직의 활동임을 강조하고, 70년대 이후의 한국의 도시변동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요청됨을 강조한다.

1912. 金益基, 張世薰, “都市貧民의 內部分化와 貧困의 再生産過程”(국문), 韓國社會學 제 21집, 한국사회학회, 1987. 겨울, pp. 77~100.

Kim Ik-Ki, Chang Se-Hoon, “Differentiation among the Urban Poor and Reproduction of the Poverty: The Case of Nanjido”(in Korean), *Journal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 21,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Winter 1987, pp. 77-100.

본 논문은 난지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 빈민의 내부분화와 빈곤의 재생산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난지도는 1978년 초에 쓰레기 매립지로 지정되면서 빈민지역으로 등장한 곳이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쓰레기더미와 접하여 생활하면서 쓰레기 속의 고물을 수거·판매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여타 빈민 지역에 비해 사회공간적 격리현상이 뚜렷하여 대외적 관계도 폐쇄적이고 소극적이다. 이런 점에서 주민들은 동진적 생활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은 도시빈민으로서 끊임없이 內의인 분화를 겪고 있다. 난지도 주민의 내부분화와 함께 그들의 빈곤에의 대처양상은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득을 극대화하고 또한 소비를 극소화하여 빈곤에 대처하고 있으나, 중간상인들의 착취 등으로 인해서 무



- 산되어 버리고, 이들에게는 노동력의 마모 및 폐질화밖에 남지 않는다. 자녀교육을 통한 세대간의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도 교육기회의 심한 폐쇄성과 열악한 생활환경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결국 난지도 빈민들은 끊임없는 빈곤대처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1913. 朴柱文, “都市人口集中과 就業에 關한 研究”(국문), 한국인구학회지 제 10 권 제 2 호, 한국인구학회, 1987. 12, pp. 46~57.
- Park Ju-Moon, “Relationships between Urban Population Concentration and Employment”(in Korean),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10 No.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7.12, pp.46-57.
-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인구집중과 취업에 관한 연구가 인구 분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 분야 연구가 거의 등한시된 현실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도시인구집중을 時系列的으로 측정하여 그 강도를 밝히고, 또 도시인구집중에 영향을 미친 변수, 즉 취업과 도시인구집중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 두었다. 측정하고자 한 도시인구 집중도는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행해진 센서스 연도를 연구대상연도로 삼고, 우리나라 주요행정소재지 10개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센서스연도별 및 기간별 도시인구 집중도를 계산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1914. 李 銑, “우리나라 人口移動決定에 關한 經濟的 分析”(영문), 한국인구학회지, 제 10 권 제 1 호, 한국인구학회, 1987. 7, pp. 70~86.
- Lee Seon, “An Economic Analysis of the Migration Decision : The Case of Korea”(in English),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10 No.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7.7, pp.70-86.
- By adopting a mobility model and using the 1983 KMNS data, this study analyzes the personal and place characteristics in multi-regional migration decision making. The study is focused on the determinants of migration rather than on its consequences, adopts a micro-level analysis based on the simple migration model governing the mover/non-mover decision, and examines the traditional economic hypotheses on the migration process.
1915. 李成基, “貧困의 正義와 測定에 關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 7 권 제 2 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12, pp. 149~170.
- Lee Sung-Kee, “A Study on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Poverty”(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7 No.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7.12, pp.149-170.
-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빈곤의 개념을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빈곤의 측정방법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빈곤의 측정에 대한 연구경향과 공식적인 빈곤선의 측정방법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빈곤의 개념정의와 측정방법의 연구는 학문적인 영역에 속하나, 이의 결정은 즉 공식적인 빈곤선의 결정의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각국의 연구경향은 물론 공식적인 빈곤선측정에 있어서 빈곤의 개념이 절대적인 개념에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 빈곤선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1916. 李昌洙, “都市再開發의 方向摸索에 關한 研究—大田市 都心權을 中心으로”(국문), 開發과 自治 제 1 권 제 1 호, 한국지역개발·자치학회, 1987. 9, pp. 221~240.
- Rhee Chang-Soo, “New Directions for Urban Renewal Project”(in Korean), *Journal of Regional Development and Autonomy* Vol.1, No.1, Korea Regional Development and Autonomy Association, Seoul, Korea, 1987.9, pp.221-240.
- 본 논문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빈민 지역에 대한 재개발정책이 획일적인 철거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오늘날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한 도시 재개발 사업의 해결책의 하나로 재개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의한 문제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성공적 도시 재개발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도시재개발 사업계획은 주민의식조사를 통하여 완전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수립되어질 것, 둘째, 주민을

위한 재개발사업이 되도록 할 것, 세제, 공공기관과 주민조합의 합동재개발 방법이 강구되어질 것이 요구된다고 한다.

1917. 崔仁鉉, 具成烈, 金秀鳳, “勞動供給要因과 人口移動”(국문 및 영문요약), 人口保健論集 제 7권 제 2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12, pp. 3~18.

Choe Ehn-Hyun, Koo Sung-Yeol, Kim soo-Bong, “Migration as a factor in Labor Supply”(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7 No.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7.12, pp.3-18.

인구이동은 인적자원의 재분배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 流量變數는 보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기회를 향해 움직이기 때문에, 인구이동은 인적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본 논문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고용기회의 구조적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인구이동의 민감성을 파악하고, 노동공급요인으로서의 인구이동의 역할을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회고조사에 의한 개인적 과거이동사를 기초로 작성된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인구이동률은 관찰대상기간동안 고용기회의 구조적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으나, 이동자들의 경제활동상태와 산업간 유동비율의 하향추세는 최근들어 인구이동이 더 이상 노동공급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중요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1918. 崔在錫, “離村과 親族의 변화: 한 촌락사회에서의 사례연구”(국문), 한국사회학 제 21집, 한국사회학회, 1987. 여름, pp. 215~240.

Choi Jai-Seuk, “Changes in Kinship Structure and Outmigration”(in Korean), *Journal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21,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Summer 1987, pp.215-240.

본 연구는 산업화·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한국의 농촌사회가 경험하는 대규모 이촌현상이 과거 촌락사회내의 인간관계에 핵이던 전통적 친족관계의 해체 내지 약화를 초래했다고 보고, 친족관계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농촌 사회의 구조적 변화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하고 있다. 필자는 사례 연구를 통해서, 현재의 농촌부락내의 친족의 범위가 어떻게 축소되고 있는가 하는 점과 그와 같이 축소된 친족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친족원 상호간의 기능적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입촌사례를 중심으로 출가한 여자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이촌중인 자녀들과 재촌부모들과의 관계 및 장례시의 친족원들의 협력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필자는, 더 이상 농촌사회에서 친족의 기능이 촌락생활에 있어서의 1차적 의의를 갖기 어렵다는 점과, 혈연에 못지않게 지연적 요소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1919. 崔在錫, “離村과 所有農地의 變化”(국문), 정신문화연구 제 33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pp.109~141.

Choi Jai-Seuk, “Changes in Ownership of Farmland and Rural Outmigration”(in Korean), *Journal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Vol.33, Academy of Korean Studies, Seoul, Korea, 1987, pp.109-141.

이 글은 60년대 이후의 급격한 離村현상에 직면해 있는 D부락 주민의 소유농지유동상황을 각 농가의 유형별 성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소유규모별 농가유형의 변화, 부락 전체의 소유면적의 증감과 개개농가의 소유농지 증감유형을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 특히 주의깊게 고찰한 것은 離村者의 농지처리가 어떻게 재촌주민의 농지소유규모를 변모시키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또한 소유농지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상실하고 있는 재촌농가의 성격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 3. Family 家族

1920. 高光林, “傳統文化 繼承과 새마을運動의 連帶性—傳統社會의 婚姻奢侈弊害 中心으로—”(국문), 새마을연구, 仁川教育大學 새마을研究所, 1987, pp. 155~173.

Koh Kwang-Lim, “Succession of Traditional Culture and Saemaul Movement: A Case Study of Wedding Extravagances”(in Korean), *Journal of Saemaul Research* No.3, Saemaul Research Institute, Incheon Teachers College, Incheon, Korea, 1987, pp.155-173.

이 연구에서는, 본래 유교는 화려한 것이나 사치를 숭상하기 보다는 단정함에 중점을 두었지만, 외래문화 수용의 역적 현상으로 혼례의 사치 풍조가 발생했다고 보고, 한국인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의식구조의 문제점을 살피고 있다. 이 연구는 가치관의 획일화 현상, 명분론의 정의 철학, 소비의 상향 평등화 현상을 문제점으로 지적

하고, 개선방향을 국민의식의 계몽에서 찾고 있다.

1921. 金成天, “貧困家族의 問題解決을 위한 家族治療接近에 관한 研究”(국문), 한국사회복지학 제 11 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88. 4, pp. 83~100.

Kim Seong-Chun, “A Study on Family-Remedy Approach for the Problems of Families in Poverty”(in Korea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No.11,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Seoul, Korea, 1988.4, pp.83-100.

본 논문에서는 필자는, 빈곤 가족 치료를 위한 접근법을 설정하여, 빈곤 가족 문제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필자는, 가족 치료 과정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빈곤 정책을 위한 국가 정책이나 기관의 정책의 가족단위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몇개의 치료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922. 金元年, “子女養育費의 推定”(국문), 한국인구학회지 제 10 권 제 1 호, 한국인구학회, 1987. 7, pp. 28~38.

Kim Won-Nyun, “Estimation of Child-rearing Costs”(in Korean),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Korea* Vol.10 No.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7.7, pp.28-38.

본 논문은 소비지출에 있어 일반동등척도의 추정을 통하여 자녀 양육비의 산출을 그 1 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녀의 수와 그 연령 구성을 중심으로 가계소비지출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관측함으로써, 가구간 복지수준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척도의 추정과 이를 활용하여 표본기간 동안의 자녀양육비의 실증적 추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23. 金珍淑, “우리나라의 地域的 通婚圈에 관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 7 권 제 2 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12, pp. 19~38.

Kim Jin-Sook, “A Study on the Local Marriage Network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7 No.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7.12, pp.19-38.

본 연구는 통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근접

성이 결혼연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지역적 통혼권은 어떠한가를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적 통혼범위는 전체적으로는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별 차이가 나지 않지만 개인특성에 따라서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신분제도의 해체, 자유와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상의 도입으로 통혼권의 범위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적 이동성이 높아지고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지역적 통혼범위는 좁아지고 있다.

1924. 文昌鎮, “子女教育과 需要間의 相關關係에 관한 實證的 考察”(영문), 한국인구학회지 제 11 권 제 1 호, 한국인구학회, 1985. 5, pp. 197~203.

Moon Chang-Jin, “An Empirical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ing and Demand for Children”(in English),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11 No.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8.5, pp.197-203.

Based on a quantity-quality interaction model, the author discusses empirically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chooling of children and fertility on the assumption that parents' decision to educate their children is voluntary. The relationship would differ in terms of the sex of children for less developed societies with strong son preference. But the WFS data showed no relationship between literacy and fertility at individual level in patriarchal societies.

1925. 朴泰煥, “韓國型 父母扶養施設의 模型設定을 위한 基礎調査研究(II) —農村地域 住民의 老後生活設計를 中心—”(국문 및 영문요약), 새마을연구 제 5 호, 慶尙大學校 새마을研究所, 1987, pp. 61~72.

Park Tae-Hwan, “A Preliminary Survey for Development of Korean-style Care and Housing for the Aged(II)”(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Saemaul Research* Vol.5,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1987, pp.61-72.

경남 서부지방의 농촌주민 550 명을 대상으로 하여 노후생활설계에 대한 의식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 내용은, 노후의 거주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의 형태, 부양형

태, 노후의 동거대상, 노부모 방의 위치, 노후의 가사생활, 노후의 여가생활, 노후생활 대비, 부양시설의 노부모의 위탁부양, 그리고 자신의 노후에 부양시설의 이용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1926. 方淑, “家族計劃事業이 家族 및 生活週期에 미치는 影響”(영문), 한국인구학회지 제 11 권 제 1 호, 한국인구학회, 1988. 5, pp. 185~196.

Bang Sook, “The Impact of Family Planning Programme on the Family and Its Life Cycle with Reference to the ESCAP Region”(in English),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11 No.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8.5, pp.185-196.

This study attempts to call attention to the need for data analysis to assess the programme impact in regard to (a) family planning programme acceptance and family characteristics, (b) contraceptive use and change in demographic period indices based on the concept of family life cycle, and (c) effects of reduced family size on family function. In making such family studies in Asian countries, however, there are definitions as well as data problems as the concept and methodology related to the family and its life cycle are more or less based on the nuclear family concept which is not a universal phenomenon in the ESCAP countries. This study focuses on a need for (a) the reorientation of research and evaluation strategies aimed at shifting the emphasis from the individual to the family as the unit of analysis, (b) the generation of the family data, (c) a further development of analytical methodology for family planning studies at the family level.

1927. 배화옥, “가족구조의 변천과 노인문제에 관한 고찰”(영문 및 국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 7 권 제 2 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12, pp. 203~223.

Bae Hwa-Ock, “Changing Family Structure and Aging Issues”(in English with Korean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7 No.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7.12, pp.203-223.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concerning the changing family structure and aging in Korea in relation to industrialization, cityward migration and urban concentration.

1928. 卞化順, “韓國과 프랑스에서의 家族과 離婚의 比較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女性研究* 제 5 권 제 4 호, 한국여성개발원, 1987, pp. 86~117.

Byun Hwa-So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Family and the Divorce between Korea and France”(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Women's Studies* Vol.5 No.4,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1987, pp.86-117.

이 논문은 “附加價值的 接近方法 (value added approach)”의 논리를 사용, 프랑스와 한국의 이혼 과정을 비교하고, 부부간의 갈등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1929. 卞化順, “韓國의 離婚率 變動에 關한 社會·人口學的 變因 考察”(국문), 한국인구학회지 제 10 권 제 2 호, 한국인구학회, 1987. 12, pp. 1~16.

Byun Hwa-Soon, “Socio-Demographic Factors as Explanators of Changing Divorce Rate in Korea”(in Korean),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10 No.2,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7.12, pp.1-16.

이 논문은, 이혼에 관한 사회·인구학적인 분석은 항상 그 모집단과 관련해서 해석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출발시킨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진 이혼의 인구학적인 분석은 이혼청구자의 수를 단순하게 분류하여 설명하는 데 머물렀다고 보고, 이 글에서는 이혼에 관한 여러 변수들을 총인구 수에 비례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통계자료 상의 한계로 인하여 이혼자의 사회·인구학적인 성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930. 이옥분, “여가와 청소년 클럽”(국문 및 영문 요약), 새마을연구논총 제 8 집, 경북대학교 새마을연구소, 1987. 12, pp. 93~114.

Lee Ok-Bun, “Leisure Hours and Youth Club”(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Saemaul Research Review* Vol.8, Saemaul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egu, Korea, 1987.12, pp.93-114.

이 글은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가장 많이 보낼 수 있는 청소년 클럽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필자는 여가의 개념, 특성과 기능, 내용과 선용방법을 논의한 후, 청소년클럽의 정의, 목적과 기능, 활동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이 문제는 현대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증가하는 청소년비행과 여가시간과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문제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1931 李容教, “韓國 家族流類型別 欲求와 資源에 관한 研究”(국문), 한국사회복지학 제 11 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88. 4, pp. 57~72.

Lee Yong-Kyo, “A Study on Family Desire and Social Resources in Korea”(in Korea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No.11,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Seoul, Korea, 1988.4, pp.57-72.

본 논문에서 필자는, 가족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가족의 욕구와 문제가 가족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보고, 이들 가족의 욕구와 문제의 파악을 시도하고 있다. 필자는, 결손가족의 욕구와 문제를 정상가족의 그것과 비교해 보고, 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거나 욕구충족의 기제가 해체될 때 욕구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의 유형별로 자원을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충족되지 않을 욕구와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족 복지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1932. 李潤樹·金鳳韶·安泰潤, “靑少年交友集團의 類型과 構造”(국문), 새마을연구논총 제 7 집, 경북대학교 새마을연구소, 1987. 8, pp. 41~81.

Lee Yoon-Soo, Kim Bong-So, An Tae-Yun, “Types and Structure of Youth Peer Groups”(in Korean), *Saemaul Research Review* Vol.7, Saemaul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egu, Korea, 1987.8, pp.41-81.

이 글은 청소년 교우집단의 유형과 구조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조사로 분석·논의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1개의 교우집단에 참가하고 있으며 연장자집단(고교생, 대학생, 근로청소년)은 2개 이상의 집단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힌 다음, 교우집단의 형성요인, 교우집단의 주요 활동목표, 교우집단에서의 참가 동기, 교우집단의 활동 내용을 분

석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교우집단의 중단경험, 공식적 규범의 유무에 따른 유형화, 남녀의 성별에 따른 교우집단, 회비의 문제, 입회기준, 교우집단의 대표(회장), 그리고 응집성 등을 분석한다.

1933. 林春喜, 鄭玉粉, “分居한 都市長男夫婦의 扶養意識 類型: 世代間 紐帶關係를 中心으로”(국문 및 영문요약), 대한가정학회지 제 26 권 제 1 호, 대한가정학회, 1988. 3, pp. 163~177.

Lim Choon-Hee, Chung Ock-Boon, “Supporting-Attitude Type of the Married Eldest Son and His Wife Living Separately from His Parents: Intergenerational Solidarity”(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26 No.1,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Seoul, Korea, 1988.3, pp.163-177.

이 연구는分居한 도시 장남가족의 부양의식 유형은 부부 간에 상이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부양의식 유형은同居補助型, 同居獨立型, 別居補助型, 別居獨立型의 네가지로, 유대관계는 애착·갈등의 主觀의 유대관계, 客觀의 유대관계 그리고 合意의 유대관계(의무감)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이 연구는 동거형이 별거형에 비해 애착과 의무감은 많고 갈등은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장남과 부모의 친자관계에서는 애착이 유용한 설명개념인 반면, 만며느리와 시부모 간의 姻戚關係에서는 갈등이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1934. 장현섭, “제 3 세대의 가족연구를 위한 시론 (I); 연구시각에 대한 이론적 논의”(국문), 연세사회학 제 8 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1987, pp. 111~132.

Jang Hyun-Seop, “Preliminary Paper on the Third Generation Family”(in Korean), *Yonsei Journal of Sociology* Vol.8, Department of Soci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87, pp.111-132.

이 논문은 가족연구의 사회학적 의미를 인식과 실천의 측면에서 밝히고, 한국의 전통적 가족제도와 한국 가족 연구가의 역할의 사회학적 의미를 살펴 본 후, 서구의 가족 연구 경향을 맑스주의적 흐름과 구조기능주의적 흐름으로 나누어 개관하고 있다.

1935. 정현희, “어머니-子女의 愛着關係에 對한 考察”(국문 및 영문요약), *東義論集* 제 15 집 인

문·사회과학편, 동의대학교, 1988. 2, pp. 403~417.

Jeong Hyeon-Hee, "The Development of Infant Mother Attachment and Its Consequences"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ses of Donggeui Universit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15*, Donggeui University, Pusan, Korea, 1988.2, pp.403-417.

이 글은 아동발달을 긍정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조건을 보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어머니-자녀의 애착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방안의 모색을 위해 씌여졌다. 문헌을 중심으로 애착 발달에 대한 이론 및 유아의 행동 발달에 있어 어머니-자녀의 애착관계의 역할, 그리고 아동이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요인 등에 대하여 살피고 있다.

#### 4. Occupation and Labor Force

##### 職業과 勞動力

1936. 權英子, "農村女性的 勞動實態에 관한 研究, —農家主婦를 中心으로—"(국문 및 영문요약), *여성연구* 제 5 권 제 4 호, 한국여성개발원, 1987, pp. 5~47.

Kwon Young-Ja, "A Study of Korean Rural Women's Labor: With Special Emphasis on Farm Housewives"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Women's Studies Vol. 5 No. 4*,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1987, pp.5-47.

지난 20 여년간 한국 농촌사회의 급격한 구조적 변혁 속에서 농촌여성들 또한 그들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를 결정하였고, 이는 농촌여성들의 농업노동 및 기타 생산활동의 급격한 증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은 기존의 性別分業에 대한 再定義 없이 불가피하게, 그리고 이를 지원해 줄 사회적 지원체제 없이 이루어져, 농촌여성의 役割過重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서 이 연구는 첫째, 농촌여성들이 수행하고 있는 농업노동, 가사노동, 농외노동 등의 노동실태를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둘째, 가정과 농업에서의 성별분업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농촌여성의 과중노동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촌 내부의 성적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전반적인 농업정책과 농촌여성 대상의 정책입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937. 金德聖, 孔世權, 魯公均, "早期 停年退職者

의 精神·肉體·行爲의 影響 研究"(영문), 한국인구학회지 제 11 권 제 1 호, 한국인구학회, 1988. 5, pp. 204~229.

Kim Duk-Sung, Kong Sae-Kwon, Ro Kong-Kyun, "A Cohort Study of Mental, Physical and Behavioral Impacts of Early (at Age 55) Compulsory Retirement in Korea" (in English),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11 No.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8.5, pp.197-203.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impacts of early compulsory retirement upon the mental, behavioral, physic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retired workers. By constructing factor analysis, the following seven factors were identified from the mental and behavioral conditions: self-fulfillment, optimism, stress, authoritarianism, sociality, private life, and perceived prosperity. Three factors (chronic disease, current disease, and restricted activity) were identified from the physical conditions. The authors conducted statistical comparisons between the group retired at age 55 and the group retired at age 60 in terms of the factors identified. The impacts of the intermediate variables upon the factors were also considered. Results of the bi-variate and multivariate analysis confirmed the hypothesis that early compulsory retirement exerts negative impacts upon the mental, behavioral, physic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retired workers.

1938. 金成國, "조직의 통제체제와 현실이 離職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국문), *한국사회학* 제 21 집, 한국사회학회, 1987. 여름, pp. 149~186.

Kim Seung-Kuk, "Control Systems, Commitment and Turnover" (in Korean), *Journal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21*,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Summer 1987, pp.149-186.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자의 이직에 관한 사회적 시각을 살펴보고 이에 입각하여 이직의 결정요인들을 경험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사회구조적 특성을 강조하는 노동통제와 이로부터 파생된 헌신(organizational commit-

- ment)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직에 관한 사회학적 설명을 시도한다. 경험적 분석을 통해서 몇가지 시사되는 이론적인 점들은, 첫째, 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보다 헌신도가 더 높았다는 점은 성적 차별주의의 불식을 주장할 수 있으며, 둘째, 이중경제론이나 노동시장분절론이 한국적 적실성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셋째, 노동의 인간화론이 제시하는 각종의 직무개편제도의 효율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넷째, 한국의 노동자 이직율이 일본노동자 보다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노동자의 헌신도가 결코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939. 金榮和, “韓國勞動市場의 構造的 分節과 男女賃金 不平等”(국문 및 영문요약), *女性研究* 제 6권 제 2호, 韓國女性開發院, 1988, pp. 108~151.
- Kim Young-Hwa, “Gender Inequality in Earnings in the Structured Labor Market: A Case Study of the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Women's Studies* Vol.6 No.2,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1988, pp.108-151.
- 이 논문은, 개인적 접근과 구조적 접근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한국노동시장에서 남녀 임금격차를 초래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다. 중심 연구문제로는, 첫째 산업화 과정 중 한국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양상의 변화추이를 개관하고, 둘째 한국경제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분절을 개념화하고 조작화(operationalization)하여 분절된 각 부문의 양태를 분석·비교한 후, 셋째 남녀간의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로 개인적 특성에 기인하며 어느 정도로 구조적 분절에 기인하는가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구조적으로 조건화된 임금결정과정에서의 학교교육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네가지로 설정되었다.
1940. 金潤煥, “企業民主化와 勞使關係 對策”(국문), *경영연구* 제 21권 제 2호,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1987 하반기, pp. 112~116.
- Kim Yun-Hwan, “The Strategy of Business Democratization and Labor Management Relations”(in Korean), *Business Review* Vol.21 No.2, Business Management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1987.12, pp.112-116.
- 이 논문은, 권위주의 체제하의 산업전제주의(industrial autocracy)에 입각한 타율적인 비민주적 노사관계를 民主化時代의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에 입각한 자율적인 자주적 노사관계로 바꾸기 위한 방안을 논하고 있다.
1941. 문창진, “주관적 경제상태, 성역할규범, 출산력 및 여성취업”(영문 및 국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 7권 제 1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7, pp. 177~196.
- Moon Chang-Jin, “Subjective Economic Status, sex Role Attitudes, Fertility, and Mother's Work”(in English with Korean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7 No.1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7.7, pp.177-196.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여러 변수들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둔 이 논문은 첫째, 선행연구에서 여성취업의 결정요인을 검토함에 있어 간과되어 왔던 주관적 경제상태(subjective economic status)에 관한 두 변수——상대적 가계소득 및 가계소득만족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가계자원모형(household resources model)을 보완하고 둘째, 주관적 경제상태를 감안할 경우 기혼여성의 취업에 대한 출산력의 영향력이 어떻게 변모하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1942. 宋緯燮, “韓國勞動力的 質的向上이 經濟發展에 미치는 影響”(영문), *한국인구학회지* 제 11권 제 1호, 한국인구학회, 1988. 5, pp. 159~184.
- Song Wi-Sup, “The Change in Quality of the Labor Force and Its Effect on the Economic Growth of Korea”(in English),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11 No.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8.5, pp.159-184.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ductivity of the labor force and its educational attainment and experience. This study also aims at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in the labor force quality and the growth of economy at the macroeconomic level.
1943. 申榮秀, “코호트 사이즈가 經歷—資金曲線

에 미치는 影響”(영문), 한국인구학회지 제 10 권 제 1 호, 한국인구학회, 1987. 7, pp. 50~69.

Shin Young-Soo, “Effects of Cohort Size on Male Experience-Earnings Profiles in Korea” (in English),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10 No.1,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1987.7, pp.50-69.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cohort size on male experience-earning profiles by firm size in Korea based on human capital theory. It is found that while cohort size depresses earnings at entry, the negative effects of cohort size diminish and wages reach “normal” levels at relatively young ages, except for college graduates in small and medium-size firms. Thus cohort size gradually has a negative effect on earning levels but a positive effect on early career earnings growth. This implies that the costs of human capital investments are reduced in larger cohorts and the expected returns to investments by larger cohorts are larger than those by small cohorts.

1944. 沈允宗, 梁鍾會, 金正鐸, “事務職 勞動者の職業 및 職場生活에 관한 研究—화이트칼라의性格規명을 위하여—”(국문), *社會科學* 제 27 권 제 1 호,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7, pp. 187~305.

Shim Yun-Jong, Yang Jong-Hoe, Kim Jeong-Taek, “A Study on Occupation and Occupational Life of White Collar Workers” (in Korean), *Social Science Review* Vol. XXVII No.1,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1987, pp.187-305.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화이트칼라의 성격을 규명함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우선 화이트칼라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 사기업 및 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무직 근로자의 직업과 직장생활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1945. 이각범, 林玄鎮, “産業民主化의 比較研究: 韓國의 경우”(국문),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9 권 제 3 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88. 5, pp. 145~167.

Lee Kark-Bum, Lim Hyun-Chin, “A Com-

parative Study on Industrial Democracy” (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9 No.3,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5.5, pp.145-167.

이 논문은, International Research Group (1981), *Industrial Democracy in Europe* (IDE)에서 획득된 유럽 각국의 통계치와, 한국에서 ①기업규모별 표본수 ②면접자의 기업내 위계구조상 위치 ③피면접자의 직종별 차이 ④피면접자의 생산직, 사무직 구분 ⑤여성의 위계구조상 분포 ⑥조사대상기업의 노동조합 활동 참여율 ⑦사업장의 전체 회사 위계상 위치를 고려하여 표집된 9개 회사에 대한 조사에서 얻어진 통계를 사용하여, 공식적 규범과 참여의 측면, 그리고 실제적 참여(De Facto Participation)의 측면에서 산업민주주의의 국제간 비교를 하고 있다.

1946. 이경용, “광산 근로자의 직업이동”(국문), *연세사회학* 제 8 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1987, pp. 53~70.

Lee Kyung-Yong, “Occupational Mobility of Mining Workers” (in Korean), *Yonsei Journal of Sociology* Vol.8, Department of Soci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87, pp.53-70.

이 논문은 광업 부문의 노동자들의 직업이동에 대한 탐색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서 광업부문의 근로자들이 매우 빈번하게 직업이동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또한 광업에 종사하게 된 취업의 유형에는 ①처음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②생산직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있다가 광업으로 이동한 경우 ③농업에 종사하다가 광업으로 이동한 경우의 세가지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유형에 따라 각각 취업동기가 다르고 이러한 동기를 이끌었던 중요한 광업부문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의 절대액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1947. 李壽陶, “勞使協議制度의 活性化 方案”(국문 및 영문요약), 새마을 연구 논총 제 8 집, 경북대학교 새마을연구소, 1987. 12, pp. 1~91.

Lee Soo-Do, “A Plan to Active Joint Consultation System”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Saemaul Research Review* Vol.8, Saemaul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egu, Korea, 1987.12, pp.1-91.



이 글은 경영참가 제도의 일환으로 勞使協議制度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협의 제도에 대한 기존연구의 이론을 바탕으로 실시한 실증적 연구이다. 첫째, 근로자들의 의식구조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반해, 協議制度에 관한 정책적 변화는 이들의 의식 수준 변화와는 맞지 않음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1976년의 조사결과와 11년 후인 1987년에 필자가 조사한 결과를 비교했다. 둘째 현재 각 기업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사협의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노사협의회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사협의회의에 대해 극히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사간에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과 대화로만이 가능한 것이므로, 아무리 훌륭한 제도나 정책일 지라도 노사간의 협력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권고하고 있다.

1948. 李廷雨, 최보가, 崔明淑, “韓國 主婦의 家事 勞動의 經濟的 價値 推定”(국문 및 영문요약), 대한가정학회지 제 25 권 제 4 호, 대한가정학회, 1987. 12, pp. 99~111.

Lee Jung-Woo, Choi Bo-Ga, Choi Myung-Suk, “Estimates of the Economic Values of Housework conducted by Fulltime Housewives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Seoul, Korea, 1987.12, pp.99-111.

본 연구는 한국 주부의 경제적 가치를 ①주부의 주관적 평가방법, ②기회비용 방법, ③전문가 대체비용 방법, ④파출부 대체비용 방법의 네 가지지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보고이다. 가사노동의 가치추정으로 얻어진 값은 사용된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파출부 대체비용이 가장 낮고, 잠재적 소득인 기회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49. 이향순, “일본의 노동관리에 관한 구조적 연구: 이중경제론, 노동시장분절론, 거래비용분석론을 중심으로”(국문), 韓國社會學 제 21집, 한국사회학회, 1987. 겨울, pp. 167~186.

Lee Hyang-Soon, “Structural Approaches to Japanese Labor Management: Dual Econ-

omy, Labor Market Segmentation, and Transaction Cost Analysis”(in Korean), *Journal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21,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Winter 1987, pp.167-186.

본 논문은 일본의 노동관리 방식들 중,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에 의한 급여와 승진제, 회사노동조합에 대해 구조적·제도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문화의 특수성과 노동관리 방식들의 특유함을 연결하는 문화의존적 설명을 피하면서, 일본의 경제조직, 노동시장의 발달과정에서 구조적인 산물로 일본 특유의 노동관리 방식들이 발전, 제도화해왔음을 규명하면서, 이중경제론과 노동시장분절이론, 거래비용분석의 관점의 통합적 설명틀을 만들기위해 자본측과 노동측의 상호작용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일본의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유형화시켰다. 특히, 네가지 유형중, 일본의 노동관리 방식은 첫번째 유형인, 의무적 계약관계를 이상형으로 지향하면서,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라 유형 2, 유형 3의 자본우월의 계약이나 노동우월의 계약관계로 변이하고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1950. 李香順, “職業構造 上の 性別階層化에 대한 理論的 再評價”(국문 및 영문요약), 여성연구 제 6 권 제 1 호, 한국여성개발원, 1988. 3, pp. 80~111.

Lee Hyang-Soon, “Theoretical Evaluations of Occupational Sex Stratification”(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Women's Studies* Vol.6 No.1,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1988.3, pp.80-111.

이 글은 노동의 성별 격리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직업구조상의 계층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쓰여졌다. 필자는 한국의 성별 계층문제는 직업구조상의 성별 격리와 임금차 등의 경제와 노동구조에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이중구조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설명력이 높다고 한다. 한편 去來費用分析의 설명적 틀을 채용하여, ‘왜 여자노동자들을 차등적으로 다른 경제부문에 배치시키느냐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으며, 아울러 경제적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유발 지속시키는 사회문화적 제도와 기제의 연구를 병행하였다. 필자는, 왜 한국사회에서 여자들이 인적자본을 적게 축적·활용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제도의 차별과 같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도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인적자본론과 이중구조론의 통합에 거래비용분석이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

1951. 張鉉俊, “우리나라 最低賃金制의 內容과 經濟的 效果分析”(국문), 사회복지 제 33권 제 3호(통권 94 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7. 가을, pp. 67~84.

Chang Hyun-Joon, “Minimum Wage System in Korea: Its Contents and Projected Economic Effects”(in Korean), *Social Welfare* Vol. 33 No. 3,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Seoul, Korea, Autumn 1987, pp. 67-84.

본 논문은 최저임금제의 내용을 적용대상업종, 적용대상노동자, 최저임금의 수준, 최저임금심의 위원회의 구성방식, 최저임금의 구성내용, 최저임금의 결정주기, 실시시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저임금의 실태와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 제도가 임금을 시장 균형수준이상으로 올리기 때문에 고용을 줄이고 실업을 야기시킨다는 주장이 보편적인 것이었는데, 필자는 이러한 가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업종 등에 따라 나누어서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영세하청기업에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해서 대기업과의 하청관계를 정비하여 임가공료의 점진적인 인상을 피하거나 해고인력의 재취업 및 재배치를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1952. 車鍾千, “經濟發展과 社會移動의 關係에 對한 對數線型模型分析의 檢討—Goldthorpe 比較 社會移動論의 一貫性과 非一貫性—”(국문), 韓國社會學 제 21집, 한국사회학회, 1987. 겨울, pp. 187~208.

Cha Jong-Chun, “An Examination of Log-linear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Mobility: Consistency and Inconsistency of Goldthorpe’s Analysis of Comparative Social Mobility”(in Korean), *Journal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 21,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Winter 1987, pp. 187-208.

본 논문은 경제발전과 사회이동의 관계에 대한 대수선형모형 분석의 대표적 성과의 하나인 골드소프의 비교사회이동론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이론적·방법론적 성격과 문제점을 알아보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논의 결과는 골드소프 비교사회이동론 연구들이 경제발전에 따라 사회이동이 증가한다는 명제의 타당성에 대하여 즐기차게 반론을 전개해 왔다는 것, 그의 최근의 대수선형모형 분석은 동 명제를 상대적 이동률에 주목하여 비판하는 시도라는 것,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용된 상이한 분석 모형들이 이론상의 입장 수정을 드러낸다고 할 만한 비 일관성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공통적 이동성 유형 모형’과 ‘핵심사회 이동성 모형’ 수준들은 심각하게 상충되며, 그러한 차이는 특히 농업노동자계급의 세습, 자영농민 계급에서 농업노동자 계급으로의 이동, ‘정신노동자권’과 ‘육체노동자권’ 내에서의 이동경향 등을 둘러싸고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모형상의 차이를 영국, 프랑스, 스웨덴 3국의 사회이동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 5. Economic Development 經濟發展

1953. 金文朝, “과소비의 사회학적 고찰”(국문), 한국사회학 제 21집, 한국사회학회, 1987. 여름, pp. 241~261.

Kim Mun-Cho, “A Sociological Analysis of Over-Consumption”(in Korean), *Journal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 21,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Summer 1987, pp. 241-261.

본 연구는 소비에 있어서 정통수요이론과 소비심리학을 비판하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기본적으로 고립된 개인 소비자상을 전제로 하는 관점은 인간 상호작용에 의한 선호나 가치의 사회적 구성을 외면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의 사회학을 별도의 패러다임으로 제안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사회에 있어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은 야노미적 성격과 소외적 성격이 혼합된 복합적 병리의 양상이며, 과소비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 진단이나 대책마련에 있어 문화적 관점 및 사회구조적 관점은 맥일론적으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상보적·접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과소비에 대한 해결은 소비주의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현재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자본의 압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탈 물신주의적 길항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1954. 金秉柱, “金融自律化와 金融産業의 發展方

向”(국문), 경영연구 제 21 권 제 2 호,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1987. 하반기, pp. 79~83.

Kim Pyung-Joo, “Liberalization of Financial Markets and Development of Financial Industries”(in Korean), *Business Review* Vol.21 No.2, Business Management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December 1987, pp.79-83.

이 글은 금융자유화와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해 고찰하고 있다. 필자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낙후와 관련해서 통계 수치를 가지고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官治金融’의 문제를 고찰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의 병폐를 치료하고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1955. 金世源, “社會主義體制的 對內的 갈등과 對外經濟政策”(국문),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9 권 제 3 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8. 5, pp. 51~84.

Kim Cae-One, “Economic Dilemmas in the Socialist System”(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9 No.3,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8.5, pp.51-84.

中共이 1970년대 말 이후 登小平의 등장과 함께, 그리고 소련이 1980년대 중반 고르바초프체제의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대외경제 개방 정책을 추구해 오고 있다. 이 두 국가가 사회주의 諸國內에서 양대 주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외정책기조의 변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근본적인, 그리고 전방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사회주의 제국이 채택하고 있는 계획경제에 있어서 대외무역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살펴내는데,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나 시각에 따라 무역정책의 형태와 내용이 결정된다. 다음으로 사회주의 제국내 추진되어 오고 있는 경제개혁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제국내 시도되고 있는 경제개혁의 내용과 방향을, 주로 무역정책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유고·헝가리·중국 및 소련과 같은 대표적 사례를 개괄하고 있다.

1956. 노인철, “명목수요정책과 실질국민생산: 실증적 분석”(영문 및 국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 7 권 제 1 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7, pp. 164~176.

Noh In-Chul, “Nominal Demand Policy and Output In Korea: An Empirical Study”(in English with Korean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7 No.1,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7.7, pp.164-176.

이 논문은, 체계적인 명목수요정책의 ‘예상되지 않는 부분만이 실질 GNP에 영향을 미치고, 이미 예측된 구분은 실질효과가 없는가’를 우리나라의 자료로 검증하고 있다. 명목소득증가율을 수요관리정책변수로 대용하여 분석한 결과 예상된 부분과 예측되지 못한 부분 모두가 실질국민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7. 朴茂松, “地方經濟活性化를 위한 地域金融의 役割”(국문 및 영문요약), 開發과 自治 제 1 권 제 1 호, 한국지역개발자치학회, 1987. 9, pp. 95~120.

Park Moo-Song, “A Study on the Role of Regional Finance for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Regional Development and Autonomy* Vol.1 No.1, Korea Regional Development and Autonomy Association, Seoul, Korea, September 1987, pp.95-120.

이 논문에서 필자는 지역경제의 광역화, 지역기업의 대규모화에 따라 기업의 자금수요가 방대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하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필자가 제시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의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금융구조 내지는 금융제도의 재편성을 위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정책의 의사결정기능이 행정권에서 독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역금융정책에 대한 지역금융기관의 권한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금융의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지역금융의 지역내에서의 순환구조 및 기반확대, 지역의 저축률 제고 및 지방은행의 역할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

1958. 朴昇, “資本自由化와 資本市場의 長期發展方向”(국문), 경영연구 제 21 권 제 2 호,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1987. 하반기, pp. 84~88.

Park Seung, “Capital Liberalization and Long-run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s”(in Korean), *Business Review* Vol.21 No.2, Business Management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December 1987, pp.84-88.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저자경제·인플레경제·저저축경제·보호경제 속에서 자라왔으며, 따라서 그러한 경제풍토에 알맞도록 그 틀이 짜여져 있다. 지금 당면한 문제는 흑자경제·저물가 경제·고저축경제·개방경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틀을 바꾸는 일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간추려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본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필요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자본시장의 개방과 확대, 그리고 간접금융 편중체제에서의 탈피를 위해서 세제나 금융면의 제도적 정비가 있어야 한다. 세제 금융이證券化하고 금융제도의 개편과 더불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필자는,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증권시장의 행태와 관행을 近代化하는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1959. 朴英哲, “經濟發展과 金融·資本市場의 役割”(국문), 경영연구 제 21 권 제 2 호,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1987. 하반기, pp. 71~78.

Park Young-Chul,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Financial and Capital Markets”(in Korean), *Business Review* Vol.21 No.2, Business Management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December 1987, pp.71-78.

오늘날 금융·자본시장은 가장 변혁이 심한 경제부분의 하나이다. 국내적으로는 시장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합과정은 불가피한 경향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환기에 처한 한국경제에 있어 금융·자본시장은 국민경제 발전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자본시장은 시장기능의 제고를 통하여 저축률의 제고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증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본시장은 금융자율화의 점진적인 추진과정에서 시장기능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금융의 증권화의 진전과 증권유통시장의 심화 등을 통하여 국내금융·자본시장의 통합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경제발전에 있어서 자본시장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의 주식시장 현황을 고찰하고 나서, 그 정책적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1960. 손장권, “한·미·일 조직구조와 효율성에 관한 비교연구”(국문), *韓國社會學* 제 21 집, 한국사회학회, 1987. 겨울, pp. 143~166.

Son Jang-Kwon, “Organization Structure and Efficiency in Industrial Manufacturing : Korea, Japan, and the U.S.A.”(in Korean), *Journal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21,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Winter 1987, pp.143-166.

본 논문은 산업화 과정에 있는 한국과 산업국가인 일본 및 미국의 조직구조와 조직의 효율성에 대하여 다차원적 개념틀로 조직특성과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산업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활동의 맥락적 차원, 구조적 특성, 행위적 성격 등을 조직 활동의 산출결과인 조직 효율성에 연계적 관계로 고찰한다. 조직의 맥락적, 구조적, 행위적 조직활동의 특성들은 조직활동의 결과에 연계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조직의 효율성을 설명해주는 인과적 요인들은 각국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르다. 한국의 생산조직의 경우 조직 효율성은 의사결정의 분권화의 조직원의 퇴행행위와 긍정적인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 조직의 경우는 기계기술과 의사결정의 집중화가 조직 효율성에 긍정적이었으며, 미국의 경우는 조직의 맥락적 측면인 기계기술은 긍정적으로, 조직 규모는 부정적으로 조직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산업화가 진행중인 한국과 같은 나라의 생산조직체는 조직 활동의 결과가 조직의 구조적 측면보다는 조직 구성원의 행위적 측면에 의존함을 시사하고 있다.

1961. 沈元弼, “多國籍企業과 企業倫理(1) : 美國의 對 開發途上國 殺蟲劑輸出을 中心으로”(영문), *論文集* 제 9 집, 안동대학, 1987, pp. 215~229.

Shim Won-Pil, “Multinational Companies and their Business Ethics (I) : Export of Pesticides from the U.S. to Developing Countries”(in English), *Research Review of Andong National University* Vol.IX,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Korea, 1987, pp.215-219.

This paper discusses the ethical problems of multinational companies using a multinational pesticide company as a model case.

1962. 尹一鉉, “開發途上國에 미치는 多國籍企業의 效果에 관한 考察”(국문), *論文集* 제 6 권 제 1 호, 대전대학, 1987. 7, pp. 185~206.

Yun Il-Hyun, “A Study on Effects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n Korean), *Thesis Collection* Vol.6 No.1, Taejon College, Taejon, Korea, 1987.7, pp.185-206.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자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이익에 합치하는 외국인 투자정책을 전개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자국 경제정책에 마찰요인을 안고 있는 외국인 투자를 도입할 가능성이 많으며, 경제개발을 外資에 의존하여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고 크면 클수록 외국인 투자가 초래하는 불리점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다국적 기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는 반면, 부정적인 요소도 있어서 이들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가능한 한 마찰을 줄이고 개발촉진효과를 극대화시킬 방안을 2가지로 모색하고 있다. 첫째는 다국적 기업의 특성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 자체를 통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대책의 성공여부는 개발도상국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교섭력에 달려있다고 보는 필자는, 교섭력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하여 被投資國들이 공동 보조를 취하여 다국적 기업의 횡포와 부정적 효과 방지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1963. 李正澤, "수출지향적 산업화과정에서의 노동통제와 노동운동간의 역관관계" (국문), *韓國社會學* 제 21 집, 한국사회학회, 1987. 겨울, pp. 123~142.

Lee Jeong-Taik, "Dynamic Interplay of Labor Control and Labor Movement in the Process of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in South Korea" (in Korean), *Journal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21,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Winter 1987, pp.123-142.

본 논문에서는 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 있어서 수출지향산업화, 노동통제, 노동운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노동통제와 노동저항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틀은 산업현장에서의 통제와 저항간의 상호작용이 국가정치와 어떻게 연결되어 70년대와 80년대 중반에 걸쳐 변천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산업화, 통제, 저항의 세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는 산업화전략 변화자체보다는 그러한 변화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집행했느냐와 생산의 정치적 장치에 의한 노동통제가 통제와 저항의 역동성을 70년대에는 노동운동의 강한 분절화와 약한 집중화를, 80년대에는 약한 분절화와 강한

집중화를 유발한 것으로 특징지우고 있다. 80년대 제 6공화국의 노동통제체제는 정부쪽에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 투쟁을 생산현장내에서 노사간 이익분쟁의 테두리안으로 묶어 놓을 수 있는냐에, 자본은 어떻게 하면 이익분쟁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냐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원인은 노동운동의 강한 집중화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64. 李天杓, "서어비스産業의 開放化와 對應方案" (국문), *經濟論集* 제 26 권 제 3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87. 9, pp. 279~321.

Lee Chon-Pyo, "The Liberalization in Service Sector and the Corresponding Policy Measures" (in Korean), *The Korean Economic Journal* Vol.26 No.3,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7.9, pp.279-321.

이 글은 서어비스 산업의 교역자유화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가지게 된 것을 기연으로 하여 상품의 교역에 대한 규칙이 GATT의 원칙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즉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항의 적용이 제한되거나 약화되고, 상호주의를 해석함에 있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근본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기에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되며, 출발점을 달리 설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인식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어비스 교역에 대한 게임의 규칙에서도 이렇게 변화한 내용이 승계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서어비스 자유화가 어떠한 양상을 띠 것인지 불확실하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외적으로 서어비스 교역의 협상에 임하고, 내적으로 서어비스 개발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상황이다.

필자는 최선의 적용방법을 찾는 한가지로서 각종 경제자유화의 실험을 많이 해 본 남미경제를 검토한다. 이들 국가에서 輸出自由化, 輸入自由化, 金融自由化, 資本自由化 등을 어떻게 추진했고, 그러한 경험의 연구에서 얻어지는 교훈은 어떠한 것인지를 탐구하고, 우리나라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965. 鄭英一, "戰後世代之 經濟意識" (국문),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9 권 제 1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7. 11, pp. 91~118.

Chung Young-Il, "Values and Ideologies of the Post-War Generation in Korea: Economics" (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

icy Research Vol.9 No.1,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7.11, pp.91-118.

이 글은 경제현실과 생활수준, 세대정책 및 제도, 소득분배와 임금, 노사관계, 소득 및 직업에 대한 태도, 가계소비 생활 등의 폭넓은 문제에 관한 국민의식 전후세대의 특성을 관찰한 연구보고서이다. 분석자료를 다루는데 있어 기존조사연구자료 및 그 가공방법을 언급한 후에, 여러 측면에 관한 전후세대의 특징적 의식을 국민전체의 평균치 내지 전전세대의 그것과 대비 고찰한 다음, 그 함축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① 전쟁과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오늘날의 전후세대가 지닌 경제의식이나 가치관에 대해서는 지나친 우려를 지닐 필요가 없다. ② 현대 한국사회의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구조적 불균형의 완화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③ 고도 경제성장에 걸 맞는 경제윤리체계의 정립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기술어져야 할 것이다.

1966. 趙政男, “中國 經濟改革의 構圖”(국문), 亞細亞研究 제 31 권 제 2 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7. 7, pp. 95~126.

Cho Chung-Nam, “The Planning of the Chinese Economic Reformation”(in Korean),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XXX I No.2, Asiatic Research Institute, Lorea University, Seoul, Korea, 1987.7, pp.95-126.

이 글은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개혁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정책의 흐름과 내용을 파악함과 동시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등소평체제가 펼쳐고 있는 개혁정치 경향성을 유추하려는 목적하에, 중국의 ① 경제개혁의 의미, ② 경제개혁의 원칙, ③ 기업 경영체제 개혁, ④ 농촌 경제체제 개혁, ⑤ 대외 경제개방 정책 등을 다루고 있다.

## 6. Political Development 政治發展

1967. 金萬斗, “社會福祉 서비스에 있어서 政府와 民間機關의 役割”(국문), 사회복지 제 33 권 제 4 호(통권 95 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7, pp.7~28.

Kim Man-Doo, “The Role of Governmental and Voluntary Agencies in Social Services”(in Korean), *Social Welfare* Vol.33 No.4,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Seoul, Korea, 1987, pp.7-28.

이 논문은, 앞으로의 사회복지 공급체계의 설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의 마련에 목적을 두고 씌어졌는데, 먼저 공과 민의 역할에 대한 이론을, 평행봉이론, 사다리이론, 공과 민의 상호협조론, 비판적 상호협조론의 순서로 살펴보고, 다음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공과 민의 역할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의 공과 민의 역할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1968. 方熙德, “地方自治制 實施와 地域社會福祉”(국문), 社會福祉 제 33 권 제 2 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7. 여름, pp.7~37.

Bang Hee-Duk, “Local Autonomy and Social Welfare”(in Korean), *Social Welfare* Vol.33 No.2,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Summer 1987, pp.7-37.

필자는 지방자치란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방의 주민 또는 주민스스로가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이것은 곧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실천과정이며 권력의 분권화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며,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의 지방자치제 案에 추가되어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① ‘지역사회’ 혹은 ‘지방’이 행정적 단위에서 설정되기 보다는 ‘복지단위’란 측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제는 대도시에서부터 먼저 실시되어야 한다. ③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최대한 유도할 수 있는 지방자치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지방자치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방도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1969. 裴東寅, “부산지역 제조업체의 생산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폭력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국문), 한국 사회학 제 21 집, 한국사회학회, 1987. 여름, pp.187~214.

Bae Dong-In, “A Sociological View on Violence”(in Korean), *Journal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21,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Summer 1987, pp.187-214.

본 논문은 폭력의 원천적 상황이라고 상정될 수 있는 흡스적 자연상태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삶과 사회와 폭력의 관계를 인간의 사회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사회발전의 전망에서 검토하고,

폭력의 일반적 속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폭력의 제유형 가운데 특히 구조적 폭력의 정체를 알아보고자 하며, 구조적 폭력의 바탕이 되는 사회와 국가의 발생론적 근원을 사회계약론에 준거하여 살펴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의 근거를 찾아내고자 한다. 또 폭력행사가 어떠한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고찰하고, 폭력과 권력의 질적 차이가 어디에 근거하는가를, 유교적 윤리체계의 폭력지배적 성격은 어떠한가를 밝히고자 한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폭력의 제측면에 대한 고찰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1970. 安清市, “戰後世代之政治意識과 政治社會化”(국문),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9권 제 1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7. 11, pp. 63~89.

Ahn Chung-Si, “Values and Ideologies of the Post-War Generation in Korea: Political Socialization”(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9 No.1,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7.11, pp.63-89.

이 글은 정치의식과 관련된 현대한국의 정치문화적 특성을 ‘세대간의 격차’라는 각도에서 살펴보고 있다. 이 글은 체계적, 실증적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라기 보다 종래의 연구에서 발견된 여러가지 사실들을 종합·정리하는 가운데, 어떤 경향과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탐색해 보고자 한 예비적 고찰의 성격을 지닌다.

1971. 禹榮濟, “地方自治에 있어서 情報體制的 役割 및 限界性”(국문), 開發과 自治 제 1권 제 1호, 한국지역개발·자치학회, 1987.9, pp.157~180.

Woo Yong-Jae, “The Role of Policy Information System and Its Limits on Local Autonomy”(in Korean), *Journal of Regional Development and Autonomy* Vol.1 No.1, Korea Regional Development and Autonomy Association, Seoul, Korea, September 1987, pp.157-180.

이 논문에서 필자는 정책수립자의 올바른 판단을 도와주는 데에는 정보체제에 의한 정확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지방자치와 정보사회와의 관련, 지방자치에서 정보체제가 차지하는 역할 등을 논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 수요변화와 관련한 정보체제의 필요

성과 개발관리 등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 자치에 있어서 정보체제의 한계성과 이의 극복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1972. 李勳求, “韓國大學生の 價値觀과 政治—交叉文化的 分析—”(국문), 사회심리학연구 제 3권 제 2호, 韓國心理學會 산하 社會心理學會, 1987.11, pp.25~43.

Lee Hoon-Koo, “The Value System of Korean Students”(in Korean),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Vol.3 No.2, The Division of Social Psycholog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87.11, pp.25-43.

이 글은 한국 대학생들의 가치관, 사회적 태도 및 정치적 태도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그들의 여러가지 개인배경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결과를 외국의 결과와 비교한 것의 보고서이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책임감(즉 利他的 책임 등)과 二次집단에 대한 관여를 측정된 것인 바 이는 대학생 가정의 경제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경제수준이 상인 집단보다는 中이나 下인 집단이 사회적 가치를 더 중요시했다.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政治問題에 대한 태도는 남자는 여자보다 그리고 인문계는 자연계보다 더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으며, 學生運動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긍정적인데 외국학생들에 비해 학생운동 본연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온건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1973. 장세진, “한국 중소도시의 엘리트와 자발적 결사체에 관한 사례연구”(국문), 연세사회학 제 8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1987, pp.71~109.

Jang Sei-Jin, “Elite and Voluntary Association of A Middle Town in Korea: A Case Study”(in Korean), *Yonsei Journal of Sociology* Vol.8, Department of Soci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87, pp.71-109.

이 논문은, 한 중소도시에서의 엘리트와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국지역 사회 엘리트 구조의 연속성(continuity)의 문제와 자발적 결사체가 갖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alternative)들을 모색해 보고 있다.

1974. 鄭宰薰, “福洲國家形成과 女性—性差別 불식의 이데올로기를 위한 序說的研究—”(국문), 사회복지 제 33권 제 4호(통권 95호), 한국사회

복지협의회, 1987, pp.103~124.

Jeong Jae-Hoon, "Building of Welfare State and Women : An Introductory Study for the Ideology Abolishing Gender Discrimination"(in Korean), *Social Welfare* Vol.33 No.4,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Seoul, Korea, 1987, pp.103-124.

이 논문은, 복지국가 형성과정에서 페미니즘의 요구와 무관하게 수립되지 않았음을 페미니즘과 Beveridge 보고서를 중심으로 밝혀내고 있다. 복지국가 형성기의 페미니즘을 복지 페미니즘(Welfare Feminism)이라 규정한 후 그 기원, 그를 둘러싼 이념적 갈등, 그 형성의 순서로 살펴보고, Beveridge가 인지한 시대적 동향과 복지국가 형성의 이념에 반영된 여성문제 등을 논의한 뒤, 마지막으로 여성의 현실적 이익 도모를 위한 실천적 관심과 母性的 이데올로기 강조, 남녀 성 역할의 극복문제를 '복지국가와 여성'; Beveridge의 유산'이라는 소제목으로 묶어 고찰하고 있다.

1975. 崔明, "中共軍事엘리트의 정치적 역할"(국문),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제9권 제3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8. 5, pp.3~24.

Chey Myung, "Political Role of Military Elites in China"(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9 No.3,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8.5, pp.3-24.

이 논문은, 文民의 엘리트와 군사엘리트의 구별이 어렵고, 또 1949년 이래 보다 온건한 정책과 보다 급진적인 정책 사이에서 주기적인 정치변화를 거듭한 中國에 있어서 軍의 정치적 역할을 살펴보고 있다. 주기적인 정치변화가 있을 때 마다 軍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그 역할의 전 과정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하므로, 이 논문은 그러한 과정들을 개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문화혁명 이후 軍의 정치적 세력이 증대됨에 따라 많은 수의 軍幹部들이 중요한 정치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문화혁명의 受惠者가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이 문화혁명과 모택동의 유산을 수호하려 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소는 軍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현대화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등소평의 노력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976. 韓相震, "한국 중산층의 개념화를 위한 시도 : 중산층의 규모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중심으로"(국문), *한국 사회학* 제21집, 한국사회학

회, 1987. 여름, pp.121~148.

Han Sang-Jin,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the Korean 'Jung-San(Middle)' Stratum with an Emphasis on Its Size and Ideological Characters"(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21,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Summer 1987, pp.121-148.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다소 막연하게 사용된 중산층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단 중산층의 기준을 정하고 자료분석을 통해 그 규모를 추정하며, 이렇게 형성된 범주가 과연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범주인가를 분석하고자 시도한다. 중산층의 개념이 의미있는 사회학적 범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류된 집단이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유사한 실천적 지향을 갖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변수의 작용을 제대로 잡고자 한다면 서구적 국가독점자본주의 현실을 전제하고 그 위에서 구성된 이론적 모델을 그대로 빌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국가론과 관련시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잠정적인 결론은, 기존의 계급적 성향을 전제할 때 그 중에서 중산층화되는 사람은 보수적 경향과 더불어 혁신적 경향을 동시에 증가시키며, 또 전체적으로 보면 후자가 훨씬 강하고 또 증가율도 보다 현저하다는 것이다.

## 7.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都市 및 地域開發

1977. 堅確炳, 文重燮, 曹暉根, 全瑛甲, 張世浩, "地域感情의 解消를 위한 새마을 運動의 役割—부산지역의 대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국문), *새마을運動學術論文集* 제12집 제1권, 새마을運動中央本部 全國大學새마을研究所 聯合會, 1987, pp.599~627.

Kyun Hwak-Pil, Moon Joong-Seob, Cho Kyung-Keun, Chun Yeong-Kab, Chang Sae-Ho, "Role of Saemaul Movement in Solving Regional Antagonism"(in Korean), *Journal of the Saemaul Movement Studies* Vol.12 No.1, Association of Saemaul Research Institutes and Colleges, Saemaul Undong Headquarters, Seoul, Korea, 1987, pp.599-627.

이 논문은 새마을운동의 경제적 성과에 비해 정치적 기여가 뒤떨어짐에 주목하여, 새마을 운동이 정치적 발전을 위한 범국민적으로 추진해야 할 역할을 탐색하는데에 그 연구목적을 두고 있



- 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 및 부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 및 면접조사방법으로 지역감정문제에 관련한 몇가지의 기본적인 인식성향, 사회매체들의 부정적 기능여부 및 정도, 그리고 이들 매체들의 역할과 인식성향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지역감정해소를 위해서는 첫째, 정치사회화매체들의 기능을 바로 잡는것, 둘째, 그 주체는 민주주도적 노력이 되어야 하고, 셋째, 언론기관과 교육기관의 적극적 도움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영호남간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1978. 金英模, “地域開發의 理論변천에 관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開發과 自治 제 1권 제 1호, 한국지역개발·자치학회, 1987. 9, pp. 43~62.
- Kim Young-Mo, “A Study on Changes in Regional Development Theorie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Regional Development and Autonomy* Vol.1 No.1, Korea Regional Development and Autonomy Association, Seoul, Korea, September 1987, pp.43-62.
- 본 논문의 목적은 지역 개발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검토와 연구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 논문은 지역개발이론을 하향식개발이론과 상향식개발이론으로 나누어 이 두 이론의 성격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하향식 개발이론은 기존의 개발이론으로서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론에 근거를 두고있으며 거점개발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반면, 상향식 개발이론은 새로운 개발이론으로써 중속·소득배분·균형성장등에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이 논문은 하향식 개발이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상향식 개발이론이 1970 년대에 등장했으나 이 상향식 개발이론은 아직도 실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향식이론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계속적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1979. 김왕배, “자본주의 도시와 정치경제학적 접근”(국문), 연세사회학 제 8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1987, pp.5~37.
- Kim Wang-Bae, “The Review of Political Economic Approaches to Capitalist Cities”(in Korean), *Yonsei Journal of Sociology* Vol.8, Department of Soci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87, pp.5-37.
- 이 논문은, 노동력의 재생단, 자본의 축적 및 유통, 순환의 측면에서, 그리고 나아가 자본주의 국가의 역할과의 관련 속에서 도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도시 정치경제학의 소개와 개관에 역점을 두고 있다.
1980. 金鍾根, “地域政策의 評價模型”(국문), 開發과 自治 제 1권 제 1호, 한국지역개발·자치학회, 1987. 9, pp.181~194.
- Kim Jong-Kun, “A Framework of Regional Policy Evaluation”(in Korean), *Journal of Regional Development and Autonomy* Vol.1 No.1, Korea Regional Development and Autonomy Association, Seoul, Korea, September 1987, pp.181-194.
- 이 논문은 公共政策으로서의 지역정책의 효율적 평가를 위한 개념적 준거를 마련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즉, 지역정책평가와 관련된 목표인 지, 관련자의 수요정보, 평가유형, 평가기법의 고찰을 통한 지역정책의 평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필자는 어떠한 유형의 지역정책에도 적용되는 이상적인 평가모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별 정책에 따라 어떠한 절차, 유형, 기법의 평가방법을 선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1981. 金鎮國, “嶺·湖南 大學生의 相互間 差異知覺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사회심리학연구 제 3권 제 2호, 韓國心理學會 산하 社會心理學會, 1987. 11, pp.113~147.
- Kim Jin-Kook, “Youngnam and Honam Students' Perception of the Differences between Youngnam and Honam People”(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Vol.3 No.2, The Division of Social Psycholog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87.11, pp.113-147.
- 이 연구의 결과는 영·호남 대학생들 간의 편견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필자는, 지역적 편견이 고질적인 사회병리현상의 하나로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한다는 공통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전반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다면 편견해소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1982. 朴仁鎭, “地域經濟의 研究動向과 方向定立”(국문 및 영문요약), 開發과 自治 제 1권 제 1호, 한국지역개발·자치학회, 1987. 9, PP. 63~94.
- Park In-Ho, “A Study on the Methodology

and Tendency of Regional Economic Studies"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Regional Development and Autonomy* Vol.1 No.1, Korea Regional Development and Autonomy Association, Seoul, Korea, September 1987, pp.63-94.

본 논문에서는 지역경제 문제가 대두된 시대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지역경제의 구조와 이와 관련된 지역경제학의 동향과 전개를 일반 이론적인 차원에서 정리한 다음, 구체적으로 국내의 지역 경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 논문은 또 지역경제학의 정의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면서 지역경제학의 시각과 연구영역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1983. 卞鍾和, "地域醫療保險의 效果分析—소득 계층별 의료서비스의 균점 및 소득재분배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 논집 제 7권 제 1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7, pp.126~152.

Byun Jung-Hwa, "An Analysis of Functional Effectiveness of Community Medical Insurance : Focused on the Analysis of Effectiveness of Equalizing Medical Care Utilization and Income Redistribution by Income Strata"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7 No.1,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7.7, pp.126-152.

지금까지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관리·운영적인 측면에서의 현황파악이나 문제점에 대한 분석·평가는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소득계층별 의료서비스의 균점이나 소득재분배 등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분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논문은 주로 지역의료보험이 본래 목적하고 있는 소득계층별 의료서비스의 균점과 보험료 전이에 의한 소득재분배 등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사업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있다.

1984. 安秉萬, 徐丙完, 韓弘淳, 金晚基, 金明守, "農家負債의 要因과 그 對策에 관한 研究" (국문), 새마을운동학술논문집 제 12집 제 2권,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전국대학새마을운동연구소 연합회, 1987, pp.461~485.

Ahn Byung-Man, Suh Byung-Wan, Han Hong-Sun, Kim Man-Ki, Kim Myung-Soo, "A Study on the Debts of the Farm House-

hold : Causes and Solutions (in Korean), *Journal of Saemaul Movement Studies* Vol.12 No.1, Association of Saemaul Research Institutes in Universities and Colleges, Saemaul Undong Headquarters, Seoul, Korea, 1987, pp.461-485.

이 논문의 목적은 최근 농촌부문에 크게 문제화되고 있는 농가부채의 급증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그 요인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데에 둔다.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첫째 순수농가의 구성비감소, 둘째 농민보호의 측면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의 농산물가격안정, 셋째 농축산물유통에 있어 유통구조의 개선, 넷째 농촌주민에게 팽배해 있는 소외적인 정치의식의 지양, 마지막으로 향락성 소비풍조의 개선 등을 들고 있다.

1985. 柳文壽, 金安浩, "農村家計費 支出行態 分析과 改善方案" (국문), 새마을운동학술논문집 제 12집 제 5권,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전국대학새마을운동연구소 연합회, 1987, pp.717~751.

Ryu Moon-Soo, Kim An-Ho, "Patterns of Farm Household Expenditure : Analysis and Suggestions" (in Korean), *Journal of Saemaul Movement Studies* Vol.12 No.5, Association of Saemaul Research Institutes in Universities and Colleges, Saemaul Undong Headquarters, Seoul, Korea, 1987, pp.461-485

이 논문의 목적은 농가가계의 높은 교육비 부담이나 의료비 부담이 근년에 이르러 누적되고 있는 농가부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간주됨을 중시하여, 농가가계비 중 매우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비와 의료비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농촌경제와의 관련성을 살피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둔다. 그 정책적 방향으로는, 첫째 농가소득에 맞는 교육비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둘째 의료보험통용의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하고, 셋째 농가소득의 향상을 위해 지원자금규모를 확대하여 경제작물과 축산등의 영농작체제가 다각화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1986. 李鍾益, "住居 生活保護機能의 強化를 위한 國家·地方自治團體間 機能分擔" (국문 및 영문요약), *社會科學叢論* 제 7집,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8. 2, pp.1~29.

Rhee Chong-Ik, "Role Differentiations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o strengthen the Protective Functions of Residents' Life"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Social Science Review* Vol. 7, Chongju University, Chongju, Korea, 1988.2, pp.1-29.

이 글은 주민생활보호기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배분문제에 대하여 福祉行政의 시각에서 관련되는 내용을 검토·논의하고 있다. 주민생활보호기능이란 중앙정부의 수준에서 담당할 분야가 있고, 지방정부의 수준에서 다루어야 할 분야가 있다. 貧困政策·住宅政策·教育政策·醫療政策 등은 前者에 해당되며, 兒童福祉·老人福祉·婦女子福祉·障者福祉 등은 後者에 해당되어지는 각각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대부분의 행정적 기능은, 전국적 차원에서 국민복지의 균점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점차 地方政府에로의 기능배분이 단계적으로 무리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 福祉行政의 進行過程에 관한 문제를 論議하고 있다.

1987. 車鍾千, "地域主義가 韓國社會 階層化에 미치는 影響: 서울市民의 出身地域別 地位獲得과 社會移動을 中心으로" (국문), *韓國社會學* 제 21집, 韓國社會學會, 1987. 여름, pp.69~91.

Cha Jong-Chun, "The Impact of Regionalism on the Social Stratification in Korea: Differences in Status Attainments and Social Mobility among Various Regional Groups in Seoul" (in Korean), *Journal of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 21,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Summer 1987, pp.69-91.

이 글은 지역주의 현상을 상호작용론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서울주민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출신지역 별로 그들이 지위 획득, 사회이동 및 주관적 계급의 측면에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지역주의와 계층화의 관계 조명을 시도하고 있다. 전통적 경로분석의 결과 직업지위 성취에 있어 경상도 출신은 본인들의 첫번째 직업의 영향이 두드러진데 비해서 전라도 출신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직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점은 세대간 직업이동표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대수선형모형 분석결과 사회이동 상 장거리 이동의 확률이 전라도 출신에게 유독 드물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역주의적 편견에 대한 분석에서는 그것이 서울시민 가운데에서 출신지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지만 교육이나 직업에 의해

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라도 출신이 다른 지역 출신보다 더 정확한 주관적 계급귀속을 보여준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밝히고 있다.

1988. 韓相福, 權泰煥, 文昌奎, "韓國에 있어서의 물공급과 衛生行爲에 관한 社會文化的 研究" (영문), 인구및발전문제연구소회보 제 16 권,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1987, pp.1~98.

Han Sang-Bok, Kwon Tai-Hwan, Chun Kyong-Soo, Moon Chang-Kyu, "Socio-Cultural Aspects of Water Supply and Sanitation in Korea" (in English), *Bulletin* Vol. XVI,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7, pp.1-98.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s among water source, water use and various aspects of environmental as well as personal sanitation in Korean villages, and to identify the major socio-cultural factors, ecological elements and life styles of the residents which influence the observed relationships based on the information collected in five ecological distinctive communities dispersed throughout the country. These include a metropolitan shanty town, a typical agricultural village and a fishing-cash crop farming island community. Anthropological fieldwork was adopted as the major method of data collection. To obtain questionnaire data, a base-line survey was conducted by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at the early stage of research. As a way to determine the safety of drinking water, a series of microbiological examinations of water samples were conducted over a one year period. The research has examined diverse problems of water sanitation and the related environmental problems in Korean communities at three levels, that is environmental contamination by external forces, sanitary problems due to community factors, and problems in individual perceptions and behavior.

1989. 黃甲孫, "地域開發政策의 基本方向—農村中心都市開發政策을 中心으로" (국문 및 영문요약), 開發과 自治 제 1 권 제 1 호, 한국지역개발·자치학회, 1987. 9, pp.1~27.

Hwang Kap-Son, "A Study on the Paradigm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Regional Development and Autonomy* Vol.1 No.1, Korea Regional Development and Autonomy Association, Seoul, Korea, September 1987, pp.1-27.

이 논문은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거시적 지역계획에 의한 획일적 개발방식으로서의 하향적 지역개발과 도시와 농촌 분리적인 이분법적 지역공간의 이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종래의 지역개발에 대한 시각은 발전의 개념을 경제적인 것으로만 한정 했으며, 둘째, 농촌지역을 도시의 잔여지역으로 보거나 비능률적 식량 생산활동에만 국한 시켰으며, 셋째, 형평이나 안정이 능률과 성장을 상쇄할 것이므로 발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생각 등이 그릇된 관점으로 작용하여 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오늘날의 지역개발정책이 첫째, 지역개발정책은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자연환경적 가치를 다양하게 받아들여 그 체계를 다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농촌 지역의 개발은 농촌이 그 중심도시와 기능적으로 통합된 개체로 파악된 후 단순한 농업정책의 수준을 넘어선 공간적 통합 개발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1990. 黃甲孫, 김칠규, 張東雲, 柳黃錫, 趙正勳, "地方自治와 地域開發에 관한 研究—새마을運動과 關係하여—" (국문), 새마을운동학술논문집, 제 12집 제 1권,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전국 대학새마을운동연구회 연합회, 1987, pp.217~315.

Hwang Kab-Son, Kim Chil-Kyu, Chang Dong-Woon, Ryu Hwang-Seok, Cho Jeong-Hoon, "A Study on Regional Autonomy and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n), *Journal of Saemaul Movement Studies* Vol.12 No.1, Association of Saemaul Research Institutes in Universities and Colleges, Saemaul Undong Headquarters, Seoul, Korea, 1987, pp.217-315.

이 글은 지역자치와 지역개발 및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역개발사업인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이들 각각의 이념 및 특성과 이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조명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주민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첫째, 지역적

차에 대한 인식, 둘째, 지방자치 실시에 대한 주민의식, 셋째, 지역개발의 기본방향과 전략, 넷째,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자치 실시의 필요성, 다섯째, 새마을운동의 현황과 문제점, 여섯째, 새마을운동이 지역개발에 미친 영향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1991. 黃明燦, "地域開發戰略의 再照明" (국문), 論文集 제 21집, 경기대학교, 1987, pp.323~335.

Hwang Myong-Chan, "Review to th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in Korean), *Kyonggi Journal* Vol.XXI, Kyonggi University, Seoul, Korea, 1987, pp.323-335.

이 글은 과거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1960년대는 지역개발의 기초작업의 단계로 보고, 1970년대는 지역개발 골격의 형성단계이었고, 1980년대는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한 국토의 균형개발의 추진단계라고 본다. 1980년대에 정부는 국토계획의 전략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이른바 지역경제권을 이루고 있는 大都市圈 발전전략을 채택하여, 지방대도시 개발 및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흡인력을 견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서 국토의 다핵화를 통한 균형개발을 추구하고자 시도했다. 또한 필자는 福利社會의 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지방의 복지시설, 문화·교육시설, 교통·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의 기본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하고, 둘째 지방에 공장을 적절히 배치하여 필요한 취업기회를 제때에 마련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그 결과 서울과 지방의 불균등을 완화하고 지방발전에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 지역간 균형발전목표를 보다 빨리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 9. Modernization and Social Change 近代化와 社會變動

1992. 康賢斗, "매스미디어 文化와 靑少年" (국문),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9권 제 1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7. 11, pp.157~174.

Kang Hyeon-Dew, "Values and Ideologies of the Post-War Generation in Korea : Mass Media" (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9 No.1,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7. 11, pp.157-174.

이 글은 한국의 청소년이 미국의 가치와 이념

이 담긴 외래의 대중문화, 외래의 미디어 문화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환경 속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배양'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 대중적 미디어와 대중문화, 미디어 문화와 외래문화, 미디어 효과론과 배양효과론을 분석하고, 청소년의 외래 미디어 문화 수용 실태를 3가지의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1993. 權泰煥, “社會意識의 差別現狀: 現實認識, 葛藤意識 및 價値志向을 中心으로”(국문),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9권 제 1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7. 11, pp.119~138.

Kwon Tai-Hwan, “Values and Ideologies of the Post-War Generation in Korea: Sociology”(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9 No.1,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7.11, pp.119-138.

이 글은 1986년 말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전국국민의식'자료를 이용한 의사중단 분석의 결과이다. 이 조사는 집단표본추출방법에 의한 전국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국 11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표를 이용한 조사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행해졌다. 이 글에서는 분석대상 자료에 기초해 사회의식을 크게 세 가지 구성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첫째는 사람들이 현재의 사회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를 의미하는 '현실문제에 대한 인식'이다. 둘째는 집단들 사이에서의 갈등의 정도, 불평등 또는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이며,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구성요인은 일반적인 가치지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4. 金泳謨, 金淵明, “韓國人의 相對的 剝奪意識에 관한 研究”(국문), 한국사회복지학 제 11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88. 4, pp.3~18.

Kim Yeong-Mo, Kim Yeon-Myung, “A Study on Sensing Relative Deprivation in Korea”(in Korea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No.11,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Seoul, Korea, 1988.4, pp.3-18.

필자는 본 논문에서 '상대적 빈곤'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과연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지를 실증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는 상대적 박탈감을 교육, 주택, 소득, 의료 등에 대한 질문지에 의한 표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 표본 조사는 전국의 가구주를 모집단으로 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표본추출은 전

국을 서울, 중부, 호남, 영남 지역으로 구분하고 다시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한 지역표집을 하였고,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학력, 직업을 중심으로 다단계층화표집을 실시했다.

1995. 金晉均, “大學 新入生들의 階級 및 階層 判別능력에 對한 一研究”(국문), 한국사회학연구 제 9집,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1987. 12, pp.35~63.

Kim Jin-Kyoon, “A Study on Abilit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Freshmen to discriminate the Concepts of Social Class and Social Stratification”(in Korean), *Korean Sociological Review* Vol.9,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7.12, pp.35-63.

본 연구는 사회학 개론 수강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계급적 위치와 그 판단의 이유를 진술한 내용을 분석하여, 그들의 계급 판별력을 파악해 보고, 그럼으로써 강의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교육적 효과도 가능해 보고, 또한 그들이 한국 사회의 계급구조를 바라보는 논거점을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계급범주를 4가지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일차적으로 자본가 계급의 경우 계급론 보다는 계층론을 택하는 비율이, 옳게 판단하기 보다는 그릇된 판단을 하는 비율이 많았고, 신 중간계층의 경우는 계급론보다는 계층론을 선호하는 경향이 지배적이고 그러한 한에서 판정의 정확도도 높다. 자영업자층의 경우에는 계급론에 대한 인식과 함께 구체적 판별에서는 자신들의 이층성이 반영되고 있다. 노동자 계급의 경우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구체적 인식에 대한 노력과 함께 계급적 판별의 비중도 높고 정확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6. 문소정, “일제하 일본인 대지주의 소작제 농장경영에 관한 연구”(국문), 한국사회학연구 제 9집,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1987. 12, pp.105~132.

Moon So-Jeong, “A Study on the Tenant Farming Management of Japanese Large Land Owners in the Colonial Korea”(in Korean), *Korean Sociological Review* Vol.9,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7.12, pp.105-132.

본 논문은 일제하 일본인 대지주의 소작제 농장에서 성립된 일본인 대지주와 조선인 소작농의 생산관계를 중심으로하여 총체적 사회관계를 살

펴보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체적 사회관계는 오직 일체자본의 요구인 '벼 형태의 지주수입의 극대화화 안정화'에 의해 구성되었다. 따라서 벼 형태의 지주수입을 극대화 하기 위해 일본인 대지주는 조선인 소작농의 노동능력에 따라 소작지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또 조선농업의 자연적 특수성으로 인해 창출된 거대한 유희기간의 조선인 소작농의 유희 노동력을 부업노동에 종사시킴으로써, 조선인 소작농 전 가족의 노동력을 철저하게 수탈하고, 나아가서 농업노동과 부업노동을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농업 노동의 산물의 수탈 부분을 부업노동으로 메꾸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 대지주는 농업 생산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종자의 선택에서부터 수확에 이르는 전 생산과정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하였다. 결국 일본인 대지주는 이러한 과정을 통한 수확물을 소작료 형태로 지배 통제하였으며, 조선인 소작농의 상호 보증과 피보증의 연대관계를 이용하는 여러가지 메카니즘을 통해, 조선인 소작농이 농장체제로부터 이탈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였다.

1997. 朴修一, "韓國 中小都市民의 藥物에 관한 價値意識"(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 7 권 제 1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7, pp.108~125.

Park Soo-Il, "A Study on the Medicine Value System in a Middle-Sized City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7 No.1,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7.7, pp.108-125.

한국사회의 약물 과잉소비현상은 여러 차례에 걸친 대중매체의 집중보도에서도 그 심각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들 논의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국인이 비합리적으로 약물을 선호하는 의식을 가진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같은 약물의 과잉 소비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약사행정제도의 측면과 약물공급자인 제약회사, 의사, 약사의 측면, 마지막으로 소비자인 사회성원들의 측면이 통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이제까지 주장되어 왔던 한국인의 약물에 대한 가치의식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관계되는 것으로 가정되는 몇가지 변수들의 상호연관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원주시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4개 동에서 600명을 체계적인 무작위 추출의 방법으로 선정하여 면접조사 후 분석하고 있다. 약물에 관한 가치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9

개가 가설적으로 진술되었고, 7개의 변수가 약물에 관한 가치의식과 상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음이 입증되었다. 변수들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비교하면 교육수준, 직업, 삶의 형편이 약물에 관한 의식의 형성에 보다 중요한 변수들이 밝혀지고 있다.

1998. 沈在龍, "80년대 한국 청소년의 종교관: 종교성향과 근대화 성향은 유관한가"(국문),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제 9 권 제 1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7. 11, pp. 25~50.

Shim Jae-Ryong, "Korean Adolescents 'View of Religion in 1980's': Are the Disposition of Religion and the Disposition of Modernization Related?"(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 9 No.1,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7.11, pp.25-50.

이 글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통하여 기존에 우리가 갖고있던 종교와 근대화의 관계에 대한 고정관념이 허상이었음을 보여준다. 첫째 막스 베버의 교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무리 열심히 한국의 전통종교와 근대화성향을 상관지어 설명하려해도, 별로 뜻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근대화는 어느 전통종교보다도 교육 정도와 더욱 유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 적어도 종교성향에 있어서 두드러진 차이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 특히 현재 관심의 초점인 과학성을 지닌 젊은이들도 종교단체에 대한 태도에서는 여타 세대와 아무런 차이가 없이 보수적 경향을 드러내며, 오히려 젊은 세대만 두드러지게 종교의 사회참여에 열성적이라는 시사도 근거없는 것이 드러났다.

1999. 안 진, "解放後 反民族行爲者 處罰에 關한 一考察"(국문), 한국사회학연구 제 9집, 서울대학교 사회학회, 1987. 12, pp.133~169.

Ahn Jin, "A Study on the Punishment of Anti-Nation Actors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1945"(in Korean), *Korean Sociological Review* Vol.9,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7.12, pp.133-169.

이 논문은 해방후 反民族行爲者處罰에 관한 제 논의와 활동을 해방이후 한국사회변동의 총체적 맥락속에서 파악하고, 그 실패요인을 밝히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 군정기

의 반민자처벌에 관한 제정치세력의 입장을 살펴 보고, 다음 정부수립후의 본격적인 <反民族行爲處罰法>의 제정 및 <反民特委>의 구성과 그 해체 과정을 고찰한다. 해방후 반민자처벌이 실패하고 변혁운동이 좌절된 가장 중요한 외적요인으로 미국의 對韓政策과 미군정 3년간의 성격을 들고 있으며, 미군정 대한정책의 본질은 남한 내부에 공산주의에 대한 방파제를 구축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은 남한에서 식민지시대의 구지배층인 보수우익을 믿음직한 동맹자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의해 강력한 국가기구가 장악됨으로써 반민자처벌의 여지는 구조적으로 차단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00. 李萬甲, “社會變動理論의 定立을 志向하여”(국문), 한국사회학연구 제 9집, 서울대학교 사회학 연구회, 1987. 12, pp.7~34.

Lee Man-Kap, “Toward a Theory of Social Change”(in Korean), *Korean Sociological Review* Vol.9,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7.12, pp.7-34.

본 논문은 한국 역사의 변화와 현실을 관찰한 결과로서 사회가 변화하게 되는 주요한 사회학적인 요인이 지배계층과 그 하위단계에 놓여있는 계층과의 갈등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생물학적·진화론적 설명을 사회학적 설명에 접목시키고 있다. 필자는 인간 사회의 현상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회학적 현상으로 지위와 의식의 현상을 들면서, 이를 상호작용의 틀속에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사회학이 경험적 특수과학을 자처하면서 실제로는 내용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형식만을 고찰해온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회학은 종합적인 자세에서 자연과학들의 중요한 업적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대로 심리학·인류학·역사학과 긴밀한 협조를 꾀하여 사회현상에 관한 종합이론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1. 全太甲, “農村 5日市場의 標準模型 設定에 關한 研究”(국문 및 영문요약), 農漁村開發研究 제 22집, 전남대학교 농어촌개발연구소, 1987, pp.7~26.

Chun Tae-Ghap,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Standard Rural Periodic Market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Rural Development Review* Vol.22, Rural Development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1987.12.

pp.7-26.

오랜 동안의 역사 속에서 5일시장은 꾸준히 성장·발전하여 오다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이농현상으로 인해 쇠퇴되어 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 전반적인 추세는 군단위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나 면단위 시장은 감소하는 곳도 상당히 있어, 이들을 구분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농민들은 값싼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합리적으로 거래 행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5일시장을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5일시장의 시설유형을 10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5일시장의 관리 운용은,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위원회 형태의 운영기관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02. 趙惠貞, “近代化에 따른 性役割 構造의 變化—제주도 해녀마을을 중심으로—”(국문 및 영문 요약), 여성연구 제 5권 제 2호, 한국여성개발원, 1987, pp.99~139.

Cho Hae-Jong, “Transformation of Gender Structure Korea’s Cheju Island: Forced Transition from Female Autonomy to Male Dominance”(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The Women’s Studies* Vol.5 No.2,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1987, pp.99-139.

이 연구는 산업자본주의화 과정 속에서 제주도 해녀마을이 거치고 있는 변동의 양상을 성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즉, 경제적 기반이 변함에 따라 전통적 형태의 가부장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성별분업과 위계, 그리고 성에 따른 기질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형·생성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공적 영역이 미비한 농민사회였으며 동시에 여성노동력 위주의 경제체계를 발전시켜 왔던 제주 해녀사회는, 성역할이 엄격히 구분된 사회였음에는 틀림없으나, 비교적 여성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사회였으나, 100년간의 근대화를 통하여, 특히 최근 10여년간 내에, 경제적으로는 국가주도적 자본주의체제로의 편입으로, 사회문화적으로는 도시화와 대중교육 및 대중매체의 보급에 따라, 제주는 급속히 육지경제에 종속되고 육지의 지배문화에 동화되어가고 있음을 밝히고, 전통적 상징체계의 급속한 변형은 한 세대 내의 개인들의 생애를 통한 의식변화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세대간의 교육 및 경험체계의 분화를 통한 단절의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보이고 있다.

2003. 韓相福, “農村 새마을運動의 社會文化的 成果와 展望”(국문), 서울대 새마을운동 종합연구 제 7 권 제 1 호, 서울대학교 새마을운동종합연구소, 1987, pp. 41~52.

Han Sang-Bok, “Visions and Socio-Cultural Outcomes of Rural Saemaul Undong”(in Korean), *Journal of SNU Saemaul Studies* Vol.7 No.1, Institute of Saemaul Undong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7.12, pp.41-52.

이 글은 논의의 초점을 농촌새마을운동과 그 사업에 한정시키고, 농촌새마을운동의 전개와 체계 및 주민들의 참여도를 개관한 다음, 농촌새마을운동과 그 사업의 社會文化的 成果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사업수행의 성공률과 공헌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고, 농촌 새마을운동의 사회문화적 발전방향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새마을운동의 生活化 방안과 농촌새마을 사업의 廣域化 방안을 검토해 보고 있다.

2004. 洪德律, “韓國 大企業家の 資本蓄積過程과 階級支配에 關한 實證的 考察”(국문), 한국사회학연구 제 9 집,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1987. 12, pp.65~104.

Hong Deok-Ryool, “An Empirical Study on Capital Accumulation Process and Class Domination of Big Business Entrepreneur in Korea”(in Korean), *Korean Sociological Review* Vol.9,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7.12, pp.65-104.

본 논문은 한국 자본가계급의 구조적 역동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본가 계급에 대한 연구는 첫째 추상적 범주로서의 자본의 성격 즉 자본 재생산 기반과 운동논리 등에 대한 분석과, 둘째 역사적 실체로서 행위하고 반응하며 대립하고 응집하는 구체적 존재로서의 자본가에 대한 분석을 포괄한다. 이들은 1962년 기준 22대 기업가와 1983년 기준 30대 기업가를 선정하여 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자본축적 과정, 그리고 그들의 계급지배 메카니즘 등을 실증적 자료에 입각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 자본가 계급의 구조적 역동성과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고자 노력한다. 본문에서는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화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역동적 분석을 위해, 기업들의 기업사와 기업가사를 정리한 후, 그들간에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

치면서 대기업가군에서 탈락한 기업가와 새로 대기업군으로 진입한 신흥 대기업가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 10. Welfare

### 福祉

2005. 權度容, “障礙者 福祉 System에 있어서 構成要素와 福祉 Patern에 關한 概念的 考察”(국문), 사회복지 제 33 권 제 3 호(통권 94 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7. 가을. pp. 111~146.

Kwon Do-Yong, “Conceptional Study of Elements and Welfare Patterns in the Welfare for the Handicapped”(in Korean), *Social Welfare* Vol.33 No.3,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Seoul, Korea, Autumn 1987, pp.111-146.

본 논문은 제구성요소의 상호체계로서의 장애자복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장애자복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자 복지의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복지체계를 각 영역별로 연구하고 있다. 이 글은 장애자 복지의 실천적 사회과학체계를 논고하기에 앞서, 제 구성요소와 각 영역의 복지 pattern에 관한 개념을 모델화하고, 제 요소의 상호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복지대상인 「장애」에 관한 다변수화가 실증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덧붙여서 필자는 제 구성요소의 정태적 상호관계로부터 동태적 상호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특수요소와 이들 제 요소의 동태적 상호관계의 연속적 과정 즉, 장애자복지의 service과정의 운영에 있어서 행동수단인 자원과 행동 mechanism에 관한 개념이 명확히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2006. 金顯龍, “社會事業에 있어서 質의 保障—醫療社會事業의 視點—”(국문 및 영문요약), 論文集 제 5 권 인문·사회과학편, 한림대학, 1987. 12, pp.269~289.

Kim Hyun-Yong, “Quality Assurance in Social Work”(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Hallym University Journal :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5, Hallym University, Chunchon, Korea, 1987.12, pp.269-289.

이 글은 사회사업이 한 專門職으로서 責任遂行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한국사회사업의 질을 보장하는 데 있어 전문사회사업가협회나 사회사업가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



혹은 특별히 구성된 質보장 심의위원회 등의 단체가 협동노력을 통하여 일반적인 質 보장의 원리와 기준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할 것을 이 글은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사회사업의 발전과제로 ① 앞으로의 사회사업은 하는 바에 대하여 責任을 지는 더 좋은 방법을 찾고, ②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여줘야 하고, ③ 사회문제에 변화를 가져올 보다 더 강력한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2007. 朴純一, “公的 年金制度의 資本形成에 미치는 영향”(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 7 권 제 1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7, pp.153~163.

Bark Sun-Il, “The Effects of the Public Pension Program on Capital Formation”(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7 No.1,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7.7, pp.153-163.

흔히 말하는 사회보장제도는 그 의미와 대상이 다양하고 포괄적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위험의 분산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라는 특성을 지니는 ‘공적 연금제가 자본형성에 미치는 효과’에 국한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의의를 개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적연금제가 직접식이나 부과방식이나에 따라 자본형성에 대한 효과가 다른데 즉 직접 방식에 의한 공적연금제의 채택이 자본축적률 둔화를 완화시킨다는 다소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러나 시장이자율에 못미치는 자본활용은 자원배분을 비효율화하여 자본축적을 과잉화할 뿐 아니라, 공적연금제가 저소득층에게 소득재분배를 하면서도私보험적 성격을 유지하자면 적립된 자본 이상의 연금지불이 필요할지 모른다. 이러한 이유로 적립방식 공적연금제는 일본에서 기대되는 바와 같이 부과방식적 연금제로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적립방식이 논리적으로는 자본형성에 유리하나 사회적 이익과 비용의 측면에서 부과방식보다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2008. 朴在興, “재미교포 노년층의 건강·적응·주관적 복지: 결정요인으로서의 개인적·관계적 자원”(국문), 한국사회학 제 21 집, 한국사회학회, 1987. 여름, pp.93~120.

Park Jae-Heung, “Personal and Relational Resources as Determinants of Health, Adjustment, and Subjective Well-Being”(in Korean), *Journal of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21,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Summer 1987, pp.93-120.

본 논문은 재미교포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인간사회를 이해하고 설명함에 있어서 연령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노년층의 건강, 적응, 주관적 복지의 세 측면에 있어서의 개인별 차이가 어떠한 변수들에 의해 적절히 설명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즉 재미교포 노년층이 소유·활용하는 개인적·관계적 자원이라는 범주내에 포함될 수 있는 변수들이 그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사회적·문화적 적응, 주관적 복지에 대해 어떠한 결과를 미치는가를 계량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성별·연령·미국 거주기간·혼인상태 등을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적절한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유지의 문제가, 관계적 차원에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가족관계, 가족의 관계라는 두 차원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 노년층을 위한 포괄적 의미에서의 복지 대책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차원에서 강구되어야함을 결론적으로 제언하고 있다.

2009. 朴宗三, “韓國의 改新敎와 社會福祉”(국문), 한국사회복지학 제 11 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88. 4, pp.134~147.

Park Jong-Sam, “Religion and Social Welfare in Korea: Protestant and Social Welfare”(in Korea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No.11,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Seoul, Korea, 1988.4, pp.134-147.

본 논문에서, 필자는 민간복지 자원체계로서의 개신교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전개하여, 개신교의 복지 자원을 개발하고 동원하는 학문적 이론 정립 및 임상적 기술 개발에 관심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신교와 사회복지의 관련성을 밝히고, 사회복지 자원체계로서의 개신교 현황을 고찰하며, 개신교의 자원체계를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개신교의 사회복지과제의 전망을 규명하려고 한다. 필자는 개신교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의 개신교가 성숙기에 들어서고 있으며, 보다 깊은 신학의 정립으로 사회봉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종교신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즉, 교회는 비교적 재정적 안정기를 찾고 있고 비록 교회내에 기복 신앙이 아직도 팽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선교 사회봉사에 대한 의식이 매우 급속도로

고취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교회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복지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여 외부적 압력을 받게 될 것이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때 이 경향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10. 邊昌南, “社會福祉(法人)施設の 社會的 機能強化를 위한 理事會의 構成과 運營에 關한 研究”(국문), 사회복지 제 33 권 제 3 호(통권 94 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7. 가을, pp.147~185.

Pyun Chang-Nam,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Social Function of Social Service Institutions in Korea: With a Focus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Board of Directors”(in Korean), *Social Welfare* Vol.33 No.3,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Seoul, Korea, Autumn 1987, pp.147-185.

본 논문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변화하는 가치관과 그에 따른 새로운 사회복지욕구의 다양화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한국의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수용보호사업 수준만을 유지하고 시대적 욕구에 부응한 사회적 기능사업을 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필자는, 이것이 단지 소수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지역사회 참여에 의한 욕구반영이 될수 있는 이사회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위의 문제에 대한 가정사항을 검증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사회국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시설 96개중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이사를 대상으로 조사분석을 행한다.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적 기능강화 대책으로, 이사회구성에 관한 방안과 이사회 운영에 있어 몇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다.

2011. 宋建鏞, 金慶淑, “中小病院의 財政安定度 分析”(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 7 권 제 1 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7, pp. 37~54.

Song Kun-Yong, Kim Kyoung-Sook, “Assessing Hospital Financial Viability”(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7 No.1,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7.7, pp.37-54.

이 논문은 Pegels에 의해 개발된 단순재정안정도지표(simple financial viability index= $\beta$  index)를 사용하여 병원의 재정안정도 수준을 조

사하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들을 다변량분석기법으로 밝히고 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서 1986년에 행한 병원연구에서 추출된 9개 병원의 최근 5년간(1981~1985) 재정자료이며, 분석의 결과들은 정책적 관점에서 설명되었고, 의료수가계획과 병원재정조건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분석에 사용된 모델이 변수들간의 중요한 인과관계들을 밝혀주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의료보험환자의 비율이 병원재정 안정도를 결정하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변수이고, 다음은 병원의 침상수입을 밝히고 있다.

2012. 沈大燮, “圓佛敎와 社會福祉”(국문), 한국사회복지학 제 11 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88. 4, pp. 121~133.

Shim Dai-Sub, “Religion and Social Welfare in Korea: Wonbulkyo and Social Welfare”(in Korea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No.11,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Seoul, Korea, 1988.4, pp.121-133.

필자는 본 논문에서 조안 히긴스의 논의를 언급하면서——종교와 사회복지의 관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것——하나는 종교 사상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하나는 복지 제공자로서의 교회의 역할에 관한 것을 지적하면서, 후자의 경우에 관심을 두고 대상의 한계를 시설보호사업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를 원불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 즉, 교단정책 사업으로 출발시킨 원불교 사회사업은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고 70년대와 80년대의 정부지원체제에 순응해 온 듯하며, 따라서 그동안 시설보호사업에 그치고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은 개발하지 못하였다. 80年代에 정부의 지원책에 힘입어 부랑인 복지 정신장애자 복지, 노인 요양시설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청소년 상담실과 종합 복지관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사업은 교역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전문적 접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40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원불교의 사회사업은 전통적 자선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3. 양봉민, 김진현, “診療費割引制度的 役割”(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 7 권 제 2 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12, pp. 186~202.

Yang Bong-Min, Kim Chin-Hyun, “Health Care Price Discount and Its Implica-

tions”(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7 No.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7.12, pp.186-202.

이 논문은, 기존의 의료시장이 의료서비스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계층에 보다 낮은 진료비를 부과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료보험제도의 보완적 장치로서 생각해 볼 만한 제도인 진료비할인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진료비할인제도는 기존의 의료시장이 구조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개별병원의 운영형태의 한 특징인데, 병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제도는 대규모의 자원이 투입된 병원시설의 완전가동과 흑자운영을 가능하게 해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던 계층에 적절한 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의료서비스 구매방법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가져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확산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자들 사이에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정제된 기존의 의료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으며,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시킬 수 있는 등의 효과도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2014. 이광찬, “韓國老齡保障의 課題와 方向”(국문), 사회복지 제 33 권 제 4 호(통권 95 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7, pp. 29~54.

Rhee Kwang-Chan, “Major Directions of the Social Policies on Aging in Korea” (in Korean), *Social Welfare* Vol.33 No.4,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Seoul, Korea, 1987, pp.29-54.

늙는다는 것이 출생시에 시작되어 사망시에 끝나는 하나의 지속적인 과정인 것과 똑같이, 노인이 된다는 것은 그 이전의 자기자신으로부터의 갑작스런 단절·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한 사람의 독특한 특성·능력 및 욕구들은 요구와 시대가 변화하는 배경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속된다. 이 논문의 필자는, 그러므로 노인인구가 모든 기타 인구들과 다른 어떤 독특한 하위집단이 아니라 사회의 통합적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한국의 노령화현상을 인구학적 변동과 노인들의 특성 변화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노령화의 관련의미를 짚어본 후, 노령보장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2015. 李培根, “障礙者를 위한 Group Home 模型開發—Normalization 원리를 배경으로 한 미국의 Group Home 프로그램을 중심으로—”(국문), 사회복지 제 33 권 제 4 호(통권 95 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7, pp. 77~102.

Yi Bae-Keu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Group Home Model for the Handicapped: Focusing on the Group Home Program in U.S.A. Based on Normalization Principle”(in Korean), *Social Welfare* Vol.33 No.4,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Seoul, Korea, 1987, pp.77-102.

이 논문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제 10 회 사회복지논문 현상모집에서 일반부문 가작으로 선정된 논문으로, 일생 중 매우 초기에 가정에서 이탈된 시설 정신박약아에게도, 경제적 빈곤과 부모의 무지로 인하여 방치·냉대받고 있는在宅 정신박약아에게도 매우 필요한 Group Home 프로그램을 주제로 하고 있다. Group Home 프로그램은 정상화의 원리에 입각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주거보호 형태이며, 가정과 시설의 중간단계에 위치하는 성격을 띠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제도적 보장의 결여, 가정과 지역사회의 인식부족, 성인정박자들에 대한 고용기회의 협소 등으로 인해 개발과 활성화에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먼저 미국의 정박자시설보호의 역사적 배경 및 개선을 위한 제 노력들을 살펴보고, 정상화의 원리와 철학, Group Home의 정의와 유형, 정박아를 위한 Group Home의 전개와 유형을 개괄한 후, 한국의 정박자를 위한 Group Home모형 개발을 고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6. 李英哲, “都市零細民을 위한 地域社會福祉館의 模型開發에 관한 연구”(국문), 한국사회복지학 제 11 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88. 4, pp. 38~56.

Lee Yeong-Chul, “A Study on the Model Development of Regional Social Welfare Center for the Low-Income Citizens”(in Korea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No.11,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Seoul, Korea, 1988.4, pp.3-18.

본 논문에서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의 전문적 수준에서 그 이론을 적용하고 사회복지의 여러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지역사회복지관’을 통한 방법임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

는 도시 영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지역의 문제 해결과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적·치료적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복지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복지관의 모형을 모색하고자 한다.

2017. 李鍾尹, “國民年金制度的 實施와 內容分析”(국문), 사회복지 제 33 권 제 3 호(통권 94 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7. 가을, pp. 29~66.

Lee Jong-Yoon, “National Pension Programming in Korea”(in Korean), *Social Welfare Vol.33 No.3*,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Seoul, Korea, Autumn 1987, pp.29-66.

본 논문은 인구의 노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각종 사회적 위험의 증대, 노후생계 보장을 위한 현행제도의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국민연금제도의 주요한 내용으로 필자는 적용대상과 적용방법을 규정한 후, 연금의 구성 및 산정방식, 연금 등 급여의 종류와 재원조달 및 운용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관리 운용기구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촌시설을 들어, 운용상에 있어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기록을 장기적으로 관리·유지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로써 각종·징수 등으로 재급여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또한 노인복지시설, 장애자재활 등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무도 담당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2018. 林美順, “要保護兒童을 위한 福祉서비스 傳達體系에 관한 研究”(국문), 한국사회복지학 제 11 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88. 4, 101~119.

Lim Mi-Soon, “A Study on Transmission System of Child Welfare Service for Care-Demanding Children”(in Korea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No.11*,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Seoul, Korea, 1988.4, pp.101-119.

본 논문에서 필자는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보면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제 이론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Gilbert와 Specht의 전달체계의 구조에 대한 분석에서 서비스 전달전략으로 주장하는 것 중 정책결정의 권한과 통제를 재구성하는 전략, 그리고 전달체계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전략을 연구의 분석틀로 도입하여 행

정체계의 조정과 전문화된 접근구조에 중점을 두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2019. 全學錫, “障者, 老人, 主婦 등(勞動競爭力 不充分者들)의 競爭力補充政策의 經濟性 優位(및 그 方向)”(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 7 권 제 2 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12, pp. 134~148.

Jun Hak-Suk, “Economic Superiority of a Laborization Policy for Social Welfare Clients in Korea”(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7 No.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7.12, pp.134-148.

이 논문은, 복지대상자 노동력화정책이 경제학적 측면에서 분배적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생산 또는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즉 경제학적으로 경제성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일반 실업대책에 비해 효과가 더 큼을 밝혀 우선적 실시의 필요를 논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유경쟁적 사회에서 경쟁력이 모자라는 노동력소유자가 완전비자발적실업 또는 절대실업상태로 전락하여 오히려 사회적 부담으로 존재하는 것을 노동력화하는 데 있어서, Model을 설정하고 경제이론화하여 그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 공기업확장·급여를 기업주가 지나치게 부담하지 않는 형태의 종신고용제·시간제노동 및 현대사회의 고학력화와 더불어 낭비적인 시간을 줄이는 정책(즉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야간학교를 보편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등을 주장하고 있다.

2020. 정기혜, “高等學校 教科書의 환경 및 건강분야 관련내용 분석”, 인구보건논집 제 7 권 제 2 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12, pp. 85~110.

Chung Kee-Hey, “Contents Analysis of the High School Textbooks concerning Environment and Health”(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7 No.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7.12, pp.85-110.

이 논문은 고등학교 교과서 중 보건교육에 관련된 가정과, 과학과, 사회과 및 체육과의 4개 교과목 38 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환경과 건강의 두 분야로 나누어 학교 내에서 학습되어지고 있는 보건교육의 실상을 파악하여 내년으로 계획

된 고등학교 교과서 개편작업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자료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두 분야, 즉 환경과 건강에 관한 관련내용의 총람분석과 내용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2021. 鄭址雄, “韓國 農村 地域社會福祉의 現況과 課題”(국문), 사회복지 제 33권 제 3호(통권 94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7, 가을, pp. 85~110.

Cheong Ji-Woong, “Present Status and Tasks of Social Welfare in Rural Korea” (in Korean), *Social Welfare* Vol.33 No.3,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Seoul, Korea, Autumn 1987, pp.85-110.

본 논문은 농촌지역사회복지의 개념규정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제위에서 산촌지역, 도시지역 등을 포함하여 농촌지역사회의 유아, 청소년, 부녀자, 노인 그리고 소농·영세농의 형태를 띤 농민들의 복지문제를 강구하고 있다. 필자는 각 부문별 과제를 현황과 문제제시에 이어서 몇가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농촌지역사회복지는 농촌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에 선차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농촌지역주민의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면 지역내에서 빈부간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의 방책으로는 불우이웃돕기나 공동사업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 농촌지역별로 적당한 복지 및 편익시설을 세워 농촌주민들도 필요한 문화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의료기관, 보건소, 병원 등이 오지·벽지에도 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이나 지원금지급, 집단시설 등의 대책을 통해 빈층출신의 자녀, 무의탁 노인, 심신장애자, 병약자들의 적응력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2. 曹興植, “社會保障을 통한 所得再分配 政策의 基本방향 모색”(국문 및 영문요약), *社會科學論叢* 제 7집,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8. 2, pp.97~120.

Cho Heung-Seek, “Social Security and Income Redistribution Policy”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Social Science Review* Vol.7, Chongju University, Chongju, Korea, 1988.2, pp.97-120.

본 논문은 저소득층에 유리한 정부의 移轉支出 政策을 중심으로, 특히 그중에서도 사회보장을 통한 소득재분배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하는데 주목적을 두어 우선 경제적 불평등의 제도, 그러한 불평등의 원인 및 공정한 소득분배의 기준이

무엇인가와 관련된 기존 이론들의 검토를 하고 있다.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소득분배정책의 논리와 유형, 사회보장의 재분배 기능,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소득재분배의 유형을 살펴보면 소득재분배 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은 4가지로써 모색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의 사회보장에 관한 認識提高, 둘째 사회부조제도의 강화와 사회보장급부의 불균형 문제 시정, 사회보장 운영 주체의 통합화 및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증시하는 정책의 실행이 있어야 하고, 셋째 사회보장제정의 合理化로서 사회보장비용의 합리적인 재원조달이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 公的保障의 보완으로서 私的保障의 필요성이 요청된다는 점이다.

2023. 崔日燮, “戰後 世代的 福祉意識”(국문),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9권 제 1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7. 11, pp. 139~155.

Choi Il-Sub, “Values and Ideologies of the Post-War Generation in Korea : Social Welfare” (in Korean),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9 No.1,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987.11, pp.139-155.

전후 세대들의 복지의식이 어떠한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발견점을 보고하고 있다. 그 결과는 첫째 일반적으로 전후세대들의 복지의식은 ‘보수적’이기 보다는 ‘진보적’이고, ‘미시적’이기 보다는 ‘거시적’이며, ‘우파적’이기 보다는 ‘좌파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둘째 전후세대들의 복지의식은 집단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초·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은 보수적인 성향과 진보적인 성향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복지의식에 있어서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성향이 뚜렷해진다. 넷째 복지의식은 사회문제의 성격이나 사회복지의 영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섯째 전후세대들의 복지의식은 性別과도 관련이 있다. 여섯째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그의 가치관과 이념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일곱째 대학생과 사회사업가들에 관한 연구에서는 종교가 복지의식의 형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덟째 도시출신의 청소년들이 농촌출신의 청소년들보다 다소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

2024. 崔日燮, “社會福祉와 커뮤니케이션”(국문), *社會福祉* 제 33권, 제 2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7. 여름, pp. 39~54.

Choi Il-Sub, "Communication Components in Social Welfare Programs" (in Korean), *Social Welfare* Vol.33 No.2,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Summer 1987, pp.39-54.

이 글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망을 구축하는데 유의할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 첫째는 公衆에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내용을 널리 홍보하는 일이다. 둘째는 프로그램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된 정부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로 모든 혁신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매스미디어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모든 혁신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수준에서 커뮤니케이션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들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습득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5. 韓相浩, "가톨릭教會와 社會福祉"(국문), 한국사회복지학 제 11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88. 4, pp. 148~166.

Han Sang-Ho, "Religion and Social Welfare in Korea: Catholic Church and Social Welfare" (in Korea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No.11,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Seoul, Korea, 1988.4, pp.148-166.

본 논문에서 필자는 사회 복지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사상을 성서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조명해 보고, 또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 특히 한국 교회 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현 한국 가톨릭 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2026. 황나미, "D.D.S.T.에 의한 우리나라 농촌 嬰幼兒의 발육평가"(국문 및 영문요약), 인구보건논집 제 7권 제 2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12, pp.111~133.

Hwang Na-Mi, "Analytical Study of the Developmental Status of Rural Children based on the 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in Korea"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7 No.2,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oul, Korea, 1987.12, pp.111-133.

본 연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8개도에서 1개군을 선정하여 총 8개군의 각 1개 면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609명을 대상으로 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농촌 영유아의 발육상태를 측정하고, 공공부문의 영유아 보전사업에서 그동안 등한시 되어왔던 정신적 심리적 및 사회성의 발달상태에 대한 평가를 DDST를 통하여 분석하여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시도되었다. 그 결과 영유아 성장발육은 출생을 전후한 불변의 변수가 아닌 2차적인 요인, 즉 후천적인 환경요인의 영향을 대부분 받으며, DDST는 원 저자가 발표한 표준화된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일선 보건인력에 대한 영유아 보전사업의 관리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